Vol.185

January
February

한양대학교의료원 매거진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Special theme

만성질환의 합병증까지 철벽 방어
Guardians of Health Ⅰ

젊은 층에서도 돌연사 위험 있다 '고혈압'의 합병증



'2022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올해의 기획상

'2017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2010 대한의사협회 원보콘테스트'
동상

'2010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특별상

'2010 한국병원홍보협회 사보대상'
대상

즐거운 편지

2024년에도 사랑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2023년 한 해 동안 한양대학교의료원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바라던 모든 소망과 계획했던 일들이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는 한 해이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2023년에 이어 보다 알찬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스페셜 테마로 '만성질환의 합병증까지 철벽 방어'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1+2월 호에는 젊은 층에서도 돌연사 위험을 지닌 '고혈압'의 합병증을 이야기합니다. 고혈압은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대동맥박리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혈압 조절이 필요한 만성질환입니다. 합병증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마치 건강 수호자와 같은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의료진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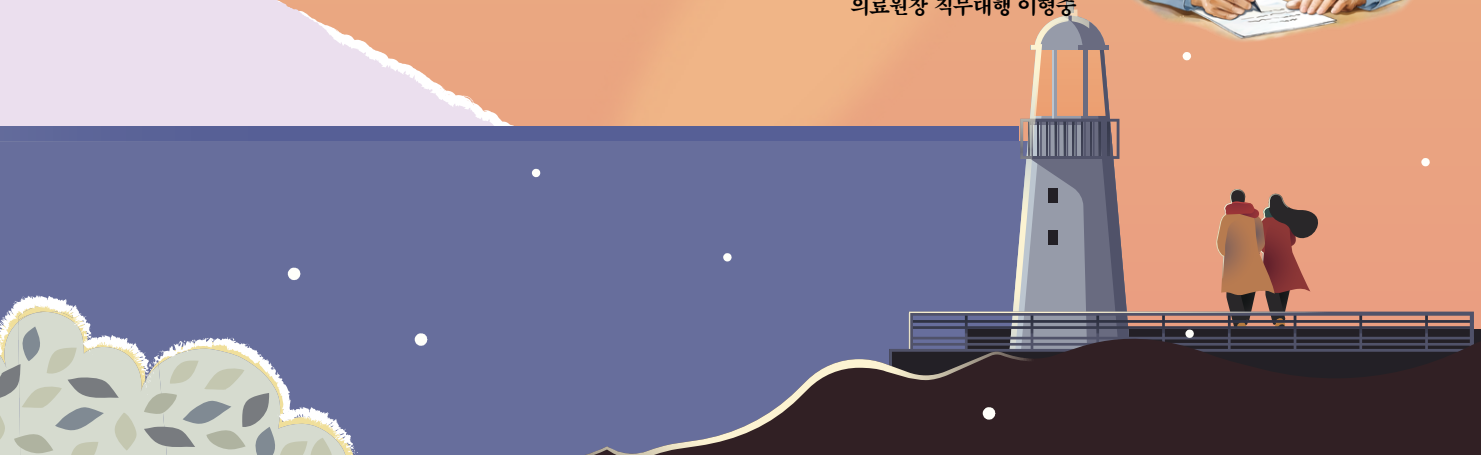
Hanyang Topic 코너에서는 한양대학교병원의 암센터와 트루빔 치료실을 만나봅니다.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우는 트루빔을 통해 환자 맞춤 치료의 원칙을 지키고, 보다 암치료 잘하는 병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한양대학교병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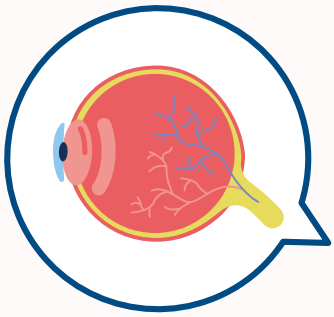
Love Life 코너에서는 코리아 닥터스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사랑을 연주하는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료진을 만나보았습니다. 의료뿐만아니라 음악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기부활동을 펼치며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의료진들의 아름다운 선율에 귀 기울여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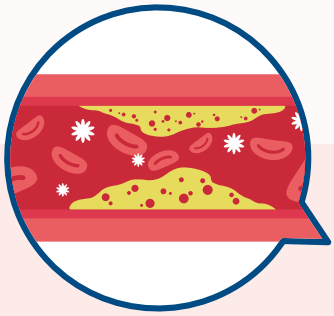
매서운 한파에 자꾸만 움츠러들지만, 한 해의 첫 걸음을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직무대행 이형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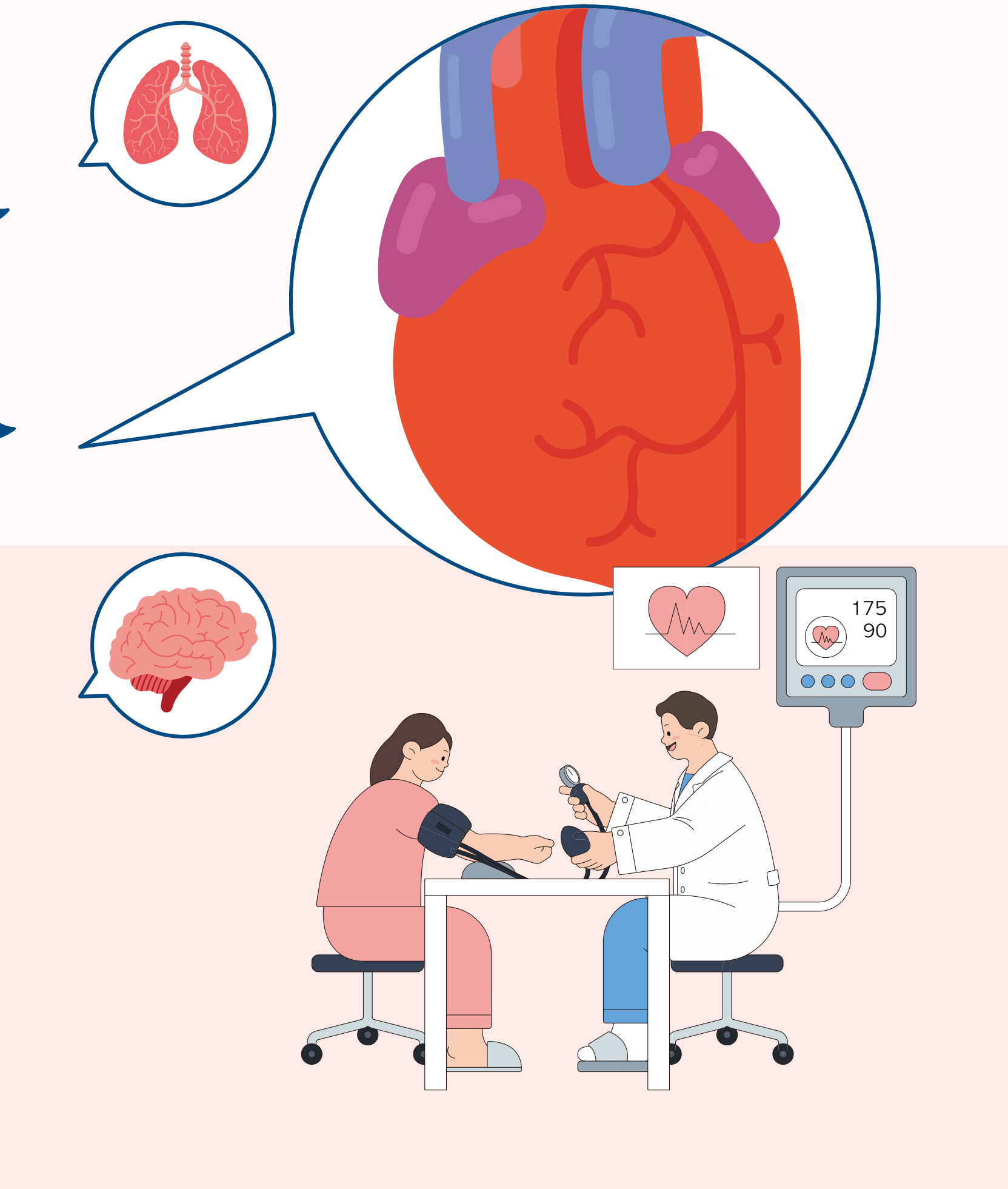






젊은 층에서도 돌연사 위험 있다, '고혈압'의 합병증

고혈압은 다른 질환에 비해서 치료 및 관리가 용이하지만 평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중요성 및 심각성을 간과하는 사람이 많다.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으면 혈압이 조절되지 않아 혈관 손상이 발생, 합병증으로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대동맥박리증 등의 합병증까지 생길 수 있다. 고혈압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에 대해 알아본다.


175
90





contents

Vol. 185 2024 January / February

02 **즐거운 편지** 2024년에도 사랑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04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재호 한양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08 **미래의학 프론티어** 한명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외과 교수

12 **Hanyang Topic** 암치료 잘하는 병원, 오직 환자만을 위하다
한양대학교병원 암센터·트루빔 치료실

18 **Special theme ❶** 돌연사 위험, 혈관 막혀 괴사하는 심근경색

20 **Special theme ❷** 고혈압 방치, 결국 터진다! 뇌졸중

22 **Special theme ❸** 대동맥박리증 환자 70~90%는 고혈압 환자

24 **Love Life** 바이올린 선율에 사랑을 담아 연주하는 의사

28 **주목할 만한 연구** 병원 밖 심정지 생존 환자의 우울증 또는 불안장애와
장기 사망률 분석

30 **미디어 속 건강주치의**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와 양극성장애

32 **베스트파트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협력기관
삼성프라임산부인과

34 **Dr. Opera**

36 **Dr. Movie** 인생은 대략 덧없다

38 **예술과 의술의 만남** 월트 디즈니와 폐암

40 **고마운 당신에게** 엄정민 한양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님께 보내는 편지

42 **언론 속 한양인**

44 **한양뉴스**

46 **Hihy 건강저장소**

48 **발전기금**

50 **이달의 이슈**

51 **외래진료시간표**

발행처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홍보팀 02-2290-9532~6 **발행일** 2024년 1월 15일 통권 185호 **발행인** 이형중 **편집인** 노성원 **편집위원** 대외협력위원회 **기획총괄** 손화선 **디자인** 김미진 **편집디자인** 큐라인 02-2279-2209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건학이념을 담아 격월간으로 펴내는 매거진입니다. 홈페이지 www.hyumc.com 혹은 '한양대학교병원'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하시면 카카오톡 메시지로 온라인 매거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거진 수령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표지모델: 한양대학교의료원 캐릭터 HY-Leo(하이레오)

글. 전혜정 사진. 안용길

세상과의 소통을 돕기 위해 환자의 말을 경청하는 의사





정재호

한양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정재호 교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는 환자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다.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삶의 질을 높여주는지 알기에 오늘도 그는 환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늘 '환자의 편에서 잘 듣고, 잘 이해해 최선을 다해 치료하자'라는 마음으로 진료실에 들어선다는 정재호 교수를 만났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던 소년

오후 외래가 시작되기 전, 이비인후과 진료실 앞은 북새통을 이룬다. 수많은 환자들이 오가는 가운데 취재진을 발견하고 수줍게 인사를 건네는 정재호 교수. 수줍음 뒤에는 환자를 향한 배려하는 큰마음이 존재하고 있었다.

손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과학자를 꿈꾸는 소년이었던 정재호 교수는 고등학교 재학시절, 돌연 의사의 꿈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과학자의 꿈을 키우다가 갑자기 의사라니.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걸까 궁금해진다.

"특별한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실용적인 학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학이 싫거나 재미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의사를 쉽게 생각한 것도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과학자보단 의사가 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방향 전환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고, 올해로 26년째 한양인으로서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의사가 된 정재호 교수는 이비인후과, 그중에서도 난청, 중이염, 이명, 어지럼증과 같은 귀질환이 전문 분야이다. 이비인후과를 선택하고 귀질환을 세부전공으로 고른 이유는 무엇일까.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좋다는 말을 들었고, 손으로 만드는 일을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수술하는 과를 지원했죠. 이비인후과가 수술이 정말 많거든요. 수술 중에서도 섬세한 수술을 하고 싶었어요. 현미경으로 정교하고 섬세하게 귀를 수술하는 지도 교수님의 모습도 멋있어 보이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귀라는 듣는 신체 기관에 대한 호기심이 컸던 것 같아요."

호기심에 이끌려 선택한 길이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원했던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는 일이기에 이비인후과 의사가 되길 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잘 듣도록

이비인후과에서 귀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 특성상 듣는 기능에 불편함을 느끼는 환자가 많다. 듣는 것이 어려운데 원활한 진료가 가능할지, 가능하다고 해도 분명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니 다시금 존경심이 인다. 정 교수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그래서 이비인후과 교수들 목소리가 큽니다"라며 호탕하게 웃어 보였다.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있지만 저보다 듣지 못하는 환자분들이 훨씬 답답하실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제가 불편한 건 사실 아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자를 위해 크게, 천천히, 또박또박,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면 해결될 일이니까요. 이런 상황도 여의치 않다면 가끔은 글자를 써서 보여드리기도 해요."

환자를 이해하고 위하는 진정한 의사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닐까. 이야기를 나눌 수록 대단한 의사라는 생각이 스친다.

난청, 어지럼증, 중이염 등은 생사를 다투는 질환은 아니지만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환인 것은 분명하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 중 만성중이염으로 언어발달이 지연되던 환자가 치료를 통해 의사소통이 좋아진다거나, 고령이신 분들 중에는 수술을 통해 잘 듣게 되는 등 연령대를 아울러 환자를 생각하면 흐뭇해진다는 정재호 교수. 가끔 외래에서 만난 환자가 "교수님 덕분에 새 삶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다고. 잘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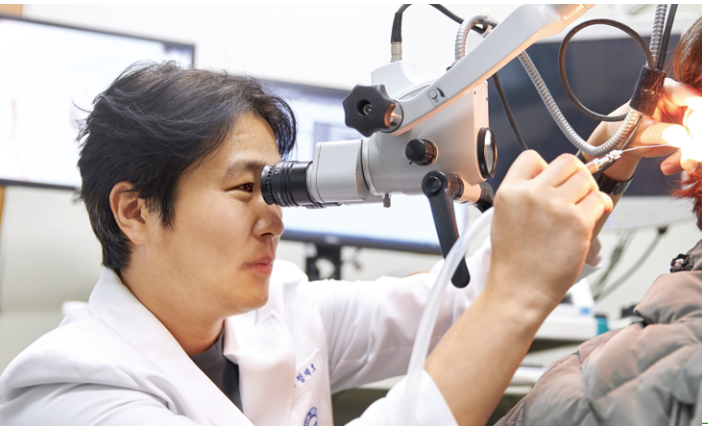
잘 듣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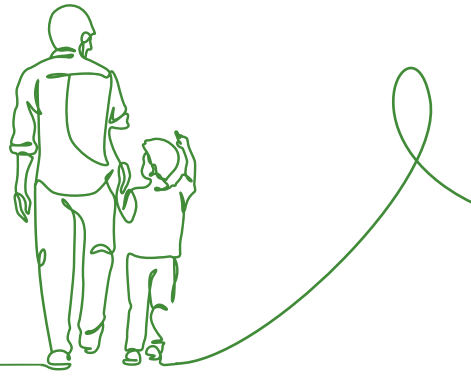
정재호 교수는 꾸준히 연구하는 의사로도 유명하다. 최근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소프트웨어공학과 교수님과 함께 귀질환을 진단하고, 회복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비인후과에서 촬영하는 고막 사진으로 자동으로 귀질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기를 제작하고, 회복 여부를 미리 알기 어려운 돌발성 난청 환자에서 회복 가능성을 예측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 더불어 청각 신경과학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과학기술 연구원(KIST)과 공동연구를 수행 중이라고 한다.

"청각 신경과학 연구는 뇌파를 분석해 내가 집중하고 있는 소리,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 기술을 다양한 곳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잘 집중해서 듣고 있는지를 컴퓨터 모니터로 게임을 하듯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훈련을 하면 난청환자들의 청취 능력이 더욱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고요, 이를 청각 뉴로피드백 기술이라고 합니다. 연구가 오래 걸리더라도 꼭 진행해보고 싶은 연구 주제 랍니다."

진료, 연구, 교육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정 교수는 명상과 달리기로 마음을 다스린다고 한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으며, 달리면서 어지럽던 생각이 정리되기 때문에 새로 시작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최근에는 하프마라톤에 출전해 완주했다며 기회가 된다면 또다시 출전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에서 몸도 마음도 건강한 의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의사

가렵다는 이유로 혹은 습관적으로 면봉이나 귀이개로 귀를 판다거나, 큰 소리로 이어폰을 사용하는 등 잘못된 습관들이 귀를 상하게 한다. 이러한 행동으로 생긴 질환을 빠르게 진료하러 오지 않는 것도 속상한 일이지만 SNS나 각종 매체를 통해 잘못된 의료 정보를 너무 쉽게 접하고, 이를 맹신해 스스로 답을 정해놓고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아 더 안타깝다는 정재호 교수. 간혹 수술이든, 특정 치료법을 정해놓고 찾아오시는 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 환자를 더 많이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그는 "의사는 환자가 있기에 존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죠"라며 이러한 생각이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 환자를 만나게 되더라도 항상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자'라고 끊임없이 되뇐다고. 이러한 마인드가 스스로를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게 만든다며 말했다.

"치료법에 관한 공부와 연구를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도 의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창하고 꿈 같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런 꿈이 있기에 오늘도 환자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환자의 마음까지 헤아리기 위해 정재호 교수는 오늘도 귀를 크게 열고 환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다.

> "항상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자 되뇌며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글. 전혜정 사진. 안용길

악성 뇌종양 치료의 길을 열어 미래를 밝혀주는 연구

한명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외과 교수



새로운 길을 향한
멈추지 않는 도전 ⑦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 의학.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 미래 의학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연구하는 리더가 필요하다. 뇌종양질환과 관련해 자신이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내며 정도의 길을 걷는 한명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외과 교수를 만났다.

Q.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신경손상학회 라미 최우수논문상, 아시아뇌종양학회 학술대회 수상 등 다양한 수상실력이 증명하듯 많은 연구 성과를 내셨습니다. 그동안 이루신 업적 중, 자랑할 만한 연구 성과를 소개해주세요.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자랑을 하려니 부끄럽습니다. 그동안 제가 연구했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중점적으로 다뤘던 연구는 뇌졸중과 골다공증의 연관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몸의 뼈가 주로 콜라겐 타입 1로 구성되어 있는데, 뇌척수액이 흐르는 통로이면서 뇌척수액의 흡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주막 섬유주(Arachnoid Trabeculae)도 콜라겐 타입 1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주막 섬유주가 약해지면 뇌척수액 순환에 장애가 생겨 뇌에 척수액이 고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를 수두증이라고 하는데요. 연구를 통해 전신질환인 골다공증이 생기면 지주막 섬유주도 약해져서 수두증이 더 잘 발생한다는 가설을 입증했습니다.

신경외과에서 다루는 중요한 뇌출혈질환 중에 뇌지주막하 출혈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뇌지주막하에 출혈이 생기면 합병증으로 수두증이 잘 동반됩니다. 그래서 뇌지주막하 출혈 환자의 뇌 CT에서 하운스필드 유닛(Hounsfield unit) 값으로 골밀도를 예측하고, 뇌지주막하 출혈 환자가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수두증 발생이 증가한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증명했습니다. 하운스필드 유닛은 X-ray 빔이 물체를 통과할 때, 빔이 물체에 얼마나 흡수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골밀도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죠. 덕분에 세계적으로 저명한 미국 뇌졸중 학회 학술지인 『Stroke journal』에 2018년과 2021년 발표할 수 있었고요. 그 외에도 다수의 다른 좋은 SCI저널에 논문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Q. 두 부분으로 연구 방향이 나뉜다고 하셨는데,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뇌종양과 면역치료에 대한 연구인데요. 여러 가지 뇌종양 중에서 가장 흔한 원발성 악성 뇌종양이 교모세포종입니다. 이 종양은 가장 예후가 안 좋은 종양으로 교모세포종의 5년 생존율은 대략 5.6%에 불과하고, 그동안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환자의 생존율이 달라지지 않아 뇌종양을 전공하는 연구자들이 여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현재 교모세포종의 치료방법인 수술, 방사선, 항암치료가 한계에 봉착했고, 한때는 면역치료가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이론적으로 교모세포종의 면역치료는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교모세포종을 공격하여 암을 치료하는 것인데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면역치료의 핵심은 종양에서 면역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하는 것인데 실제 임상에서 면역치료를 교모세포종에 적용해 보니 생각과 전혀 달랐던 거죠. 교모세포종은 자체적으로 강한 면역억제 작용을 일으켜 면역치료의 효과를 감소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모세포종에서 면역치료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종양의 미세 환경에서 면역억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중 교모세포종의 면역억제와 관계되는 유전자에 대한 연구의 관심도가 높은 편입니다.

2006년에 미국 국립암연구소와 국립인간게놈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프로젝트로 33개의 암의 종류에 따른 유전자 발현과 병리 조직 슬라이드, 임상 데이터 등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전자 데이터 베이스를 제공하는 The Cancer Genome Atlas(TCGA, 암 유전체 아틀라스)라는게 있는데요. 연구자들은 이러한 데이터들

을 모두 GDC 포탈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병리과 민경환 교수님의 도움으로 500 케이스가 넘는 교모세포종 환자의 임상 정보와 종양 조직 하나당 1만 개가 넘는 유전자 정보를 얻어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교모세포종의 면역 반응을 DKK3라는 유전자가 주로 억제하여 교모세포종 환자의 예후를 나쁘게 한다는 것을 발견해 2022년 암과 면역치료와 관련된 세계적인 저널인 『Cancer immunology immunotherapy』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TCGA 데이터 베이스에서 얻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10개의 대표 암에 속한 유전자 중 교모세포종의 예후와 관련 있는 12개의 유전자를 발견해 작년 『Frontiers in Oncology』라는 유명한 암 관련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은사님이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외과 김충현 교수님께서 연구 총책임자로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진행했던 교모세포종의 면역치료에 대한 다기관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의 자료를 다시 분석해 『Frontiers in Oncology』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엄청 많이 한 것 같네요. (웃음)



Q. 교수님께서 최근 노인 치매, 텔로미어와 관련한 논문 발표를 여러 차례 발표하셨는데요. 어떻게 연구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텔로미어(Telomere)에 관심은 있었지만 신경과 고성호 교수님 덕분에 텔로미어와 관련한 연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고성호 교수님은 제 박사 논문을 지도해주신 분이시고, 이후 계속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텔로미어란 염색체 끝부분에 있는 염색체 보호 구조를 가리키는 데 노화가 진행될수록 텔로미어의 길이는 조금씩 짧아지며, 텔로미어 길이는 세포가 얼마나 분열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생체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 텔로미어의 길이와 노인 질환의 관련성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이전 연구에서도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나이가 한 살 증가할 때마다 텔로미어의 길이가 60bp 정도로 보통 사람보다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한 바 있어 더 흥미로웠죠. 이와 더불어 노인 텔로미어 길이를 쟀을 때 노인성 우울증이나 치매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최근에 비교적 건강한 60세에서 79세의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다기관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을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연구자료를 분석해 보니 연구 대상자에서 텔로미어의 길이를 측정했을 때 텔로미어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은 경우에 향후 인지장애나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인지불만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지불만은 경도인지장애 이전의 단계로 '왜 자꾸 깜빡깜빡하지? 왜 기억력이 떨어졌지?' 하면서 인지상태에 대한 불만인 경우를 말해요. 이를 2023년 2월 미국의 노화 학회지인 『Aging』에 논문으로 게재했죠. 사실, 이 연구는 노인에서 텔로미어의 길이와 인지기능 및 우울감의 연관성을 본 것인데요. 제가 처음으로 텔로미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김충현 교수님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2006년도에 뇌종양에서 텔로머라제(Telomerase)의 활성도가 높을수록 뇌종양 환자의 예후가 좋지 않다는 논문을 발표했고, 당시 이 논문은 많은 연구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뇌종양에서 텔로머라제의 활성도가 높다는 것은 암 세포의 텔로미어 길이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잘 죽지 않고 세포분열이 왕성한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경외과 전공의 시절부터 교수님의 이 연구주제가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후 2016년부터 현재까지 뇌종양 조직을 모아오고 있는데, 개체수가 더 쌓이게 되고 여러 여건이 허락한다면 향후 김충현 교수님이 하셨던 연구를 이어서 뇌종양과 텔로미어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진료분야인 뇌종양에 방사선치료를 했을 때 텔로머라제의 활성도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Q. 최근에 교수님께서는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편집위원으로 위촉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는지, 이를 통해 진행되는 연구가 있나요?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라는 네이처(Nature)에서 출간하는 온라인 오픈 액세스 저널로 연구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저널입니다. 저도 2018년과 2019년도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고요. 『사이언티픽 리포트』의 편집위원은 세계 각국에서 투고되는 수많은 논문 중 주로 뇌종양이나 뇌출혈과 같은 신경외과 질환과 관련된 논문들을 맡아서 사전 검토를 합니다. 이후 제가 처리해야 하는 논문이 배정되면 저는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전 세계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에게 심사 요청 메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최소 두 명의 리뷰어로부터 논문의 심사가 완료되면, 리뷰어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 논문이 이대로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될 만한 수준인지, 보완하면 괜찮을지, 아니면 아예 실릴 수 없는지 등을 최종 결정해 해당 논문 교신 저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편집위원이라 일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다양한 연구 주제를 볼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지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특별한 경험이죠.

Q. 최근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다루어 보고 싶은 연구주제가 있으실까요?

현재는 TCGA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해 얻은 연구 결과를 실험실에서 입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으고 있는 실제 교모세포종 환자의 뇌종양 조직을 이용해 교모세포종의 예후와 DKK3 유전자 발현과의 연관성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모세포종 환자의 종양 조직에서 DKK3의 발현을 직접 현미경으로 확인하고 DKK3의 발현과 면역세포의 연관성에 대해 세포 단위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루어 보고 싶은 연구 주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뇌종양과 텔로미어의 관계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골다공증과 뇌졸중과의 연구 결과를 분석한 다음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골다공증과 뇌출혈, 뇌경색 간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하고 싶습니다.

Q. 외래, 연구, 온라인 저널 편집위원 등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교수님 열정의 원천은 무엇인지, 연구를 하다가 지칠 땐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의 열정의 원천은 신앙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게으른 사람이었는데 신앙을 갖고 부지런해졌다고 할까요?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살면,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연구를 하다가 지칠 땐 저는 성경 말씀을 보거나, 가족과 함께 자연으로 여행을 다니는 것이 유일한 취미예요. 그렇게 하면 재충전이 되고 연구를 지속할 원동력이 생깁니다. 말하고 보니 진짜 재미없이 사는 것 같네요. 저는 욕심 부리지 않고 겸손하며 맑은 정신으로 부지런한 것이 연구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의사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나 포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먼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으니 먼 미래의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현재는 신경외과 의사로서 실력을 더욱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2024년 하반기에 1년 연수를 갑니다. 그곳에서 수술의 테크닉과 신경외과의 여러 진료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내년 연수가 저에게 재충전의 시간이 되고 새로운 논문 아이디어를 얻는 시간이 될 것 같아 설렙니다. 무엇보다 더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신경외과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행했던 두 가지의 큰 연구 주제에 대해 앞으로 더 발전된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가야할 길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묵묵하게 전진하는 한명훈 교수. 그의 바람대로 뇌종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에 꽃을 피울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글. **전혜정** 사진. **안용길**

암치료 잘하는 병원, 오직 환자만을 위하다

한양대학교병원 암센터·트루빔 치료실

한양대학교병원은 여러 암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으며
암치료 잘하는 병원으로 자리잡았다.
지난 11월 트루빔 치료실을 개소하고, 한양대학교병원 암센터는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트루빔은 피폭되는 방사선량은 줄이고, 부작용 위험을 최소화하며,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암 치료기기이다.

(좌측부터) 태경 암센터장, 박혜진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박성열 비뇨의학과 교수, 박동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윤중천 방사선종양학과 팀장



활발한 암종별 맞춤 다학제 협진 시스템

한양대학교병원은 2014년 다른 병원보다 빠르게 다학제 진료를 도입했다. 이후 암치료 잘하는 병원으로 거듭나며, 한양대학교병원 암센터를 설립했다. 이후 한양대학교병원 암센터는 15개의 세부 진료 센터로 확장되었고, 각 세부 센터별로 의료진, 환자, 보호자가 모두 모여 상의하고 각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다학제 통합 진료를 시행하며 명실상부 암치료 잘하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태경 암센터장은 "한양대학교병원은 다른 병원에 비해 일찍 다학제 진료를 시작했다"라며 "암센터 다학제가 여전히 활발히 시행되고 있고, 암센터 다학제 진료를 시작한 후 환자들의 만족도와 치료 과정의 효율이 많이 향상되었고, 그 덕분에 2022년에 다학제 진료 1,000례를 달성했다"라고 전했다.



"트루빔 기기 도입은 한양대학교병원 암센터의 목표인 암 정복이라는 방향성과 맞물려 또 한 번 암센터가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태경 암센터장은 한양대학교병원이 일찌감치 암센터 다학제 진료를 시행하게 된 원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암은 복합된 질환이예요. 암 치료법은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이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병합하여 치료해야 하므로, 한 진료과에서 담당하는 것보다 여러 과의 협력 진료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된 여러 과가 함께 모여 다학제 통합 진료를 해야 합니다."

한양대학교병원에서는 두경부암, 폐암, 갑상선암을 위주로 다학제 통합 진료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두경부암·갑상선암센터는 로봇 수술을 비롯하여 국제적으로도 앞서가는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배우기 위해 외국의 많은 의사들이 한양대학교병원으로 연수나 견학을 오고 있을 정도이다. 이뿐만 아니라 한양대학교병원 암센터는 암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암 교육과 암 연구센터를 별도 운영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암 교육센터와 암 연구센터는 위암, 유방암, 종양내과, 소아암, 대장암, 갑상선암, 두경부암 환자의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수술 후 치료에 대한 교육과 갑상선암 환자 방사성옥소 치료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환자를 위한 더 나은 의료서비스, 트루빔 치료실

한양대학교병원 암센터 내에는 로봇수술센터, 조혈모이식센터와 트루빔 치료실이 있다. 트루빔 치료실은 지난 11월 트루빔 기기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새롭게 개소했다.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트루빔은 X선과 전자선을 이용해 방사선치료의 모든 기법(삼차원 입체조형치료, 세기조절 방사선치료, 방사선수술, 체부정위방사선치료 등) 시행이 가능해졌고, 이를 여러 가지 최신 기술로 정밀하게 구현하는 기기이다.

이에 태경 센터장은 "트루빔 기기의 추가 도입은 한양대학교병원 암센터의 목표인 암 정복이라는 방향성과 맞물려 또 한 번 암센터가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진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는 "암치료를 위해 방사선을 쪼일 때 정상세포에 불필요한 방사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막아 기존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4차원 입체 방사선 치료기기"라며 "이번 트루빔 도입에 대해 최신형 휴대기기를 산 기분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웃었다.

"방사선 치료기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가리지 않고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어요. 트루빔은 기존장비에 비해 영상의 해상도가 좋아지고 안정성이 증대된 것 이외에도 기존의 콘빔CT에서 환자의 호흡까지 점검할 수 있는 4D 콘빔CT로 발전했고, 환자의 편의성까지 생각한 최고의 장비랍니다."

트루빔은 암은 물론, 양성종양이나 뇌혈관 기형, 루게릭병 환자의 침샘치료, 켈로이드 흉터 치료 등 특정 양성질환도 치료할 수 있다. 이에 박혜진 교수는 "기존에 보유 중인 노발리스 티엑스(Novalos_Tx) 장비와 트루빔을 함께 운용하고 있어 각별히 정밀한 치료를 요하는 케이스와 한 번에 방사선량이 많이 조사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트루빔에서 치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오직 환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지난 11월 트루빔 치료실을 개소하기까지 방사선종양학과는 많은 일이 있었다. 암환자 진료와 동시에 기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공간과 시간의 제약 등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방사선종양학과 직원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환자들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정규시간보다 일찍 시작하고, 점심시간에도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직원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하나하나 친절하게 잘 응대하여 큰 소란 없이 잘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로지 "'암환자를 위해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다"고 방사선종양학과 윤중천 팀장은 회상했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암센터, 그리고 트루빔 치료실

방사선종양학과의 치료 목표는 간단하면서도 명확하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방사선치료를 시행하는 것과 더불어 암치료 과정에서 불안하고 힘들 수 밖에 없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 친절한 진료와 치료를 하는 것이다. 박혜진 교수는 "이번 트루빔 도입을 통해 보다 정교한 방사선치료가 가능해지고 치료 시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암환자들의 치료 성적 향상은 물론,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태경 암센터장은 트루빔 치료실 개소를 기점으로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암센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덧붙였다.

"현재는 15개의 세부 진료센터가 있지만 미래는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후 새 병원이 개원하면 암센터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세부센터별로 별도의 진료 공간을 가지고 환자 진료, 교육, 암 치료 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법까지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확신에 찬 얼굴로 말하는 모습에서 오직 환자만을 생각하는 의료진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환자만을 위해 한 발짝 더 성장해 나가는 한양대학교병원의 미래를 그려본다.

Mini Interview



태 경
암센터장·이비인후과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암센터는 트루빔 치료실 개소를 통해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환자 편의를 향상시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박혜진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트루빔은 치료의 정밀성은 유지하되, 빠른 시간 안에 치료를 마칠 수 있는 최첨단 기기입니다. 방사선치료 분야에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오석중
혈액종양내과 교수

암 치료 잘하는 병원의 명성에 걸 맞도록 암센터장인 태경 교수님, 각 분야의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한양대학교병원을 찾는 분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열
비뇨의학과 교수

트루빔 기기 도입으로 가장 기대되는 것은 치료 중 환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도가 높아지고, 치료 중 미용이나 개인위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암환자 치료의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동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트루빔 기기를 통해 폐암의 비침습적 방사선 수술이 가능하고 세밀한 조준경을 사용하기에 암세포만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점점 발전하는 암센터를 보면서 앞으로도 암환자 치료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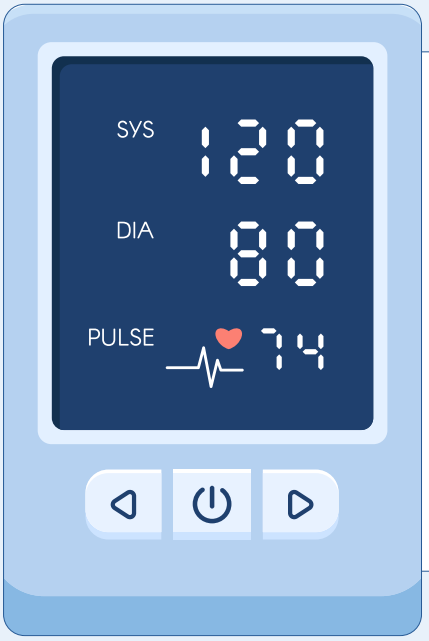
젊은 층에서도 돌연사 위험 있다, '고혈압'의 합병증

고혈압은 다른 질환에 비해서 치료 및 관리가 용이하지만 평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중요성 및 심각성을 간과하는 사람이 많다.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으면 혈압이 조절되지 않아 혈관 손상이 발생, 합병증으로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대동맥박리증까지 생길 수 있다. 고혈압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에 대해 알아본다.



고혈압 진료지침에 따른 혈압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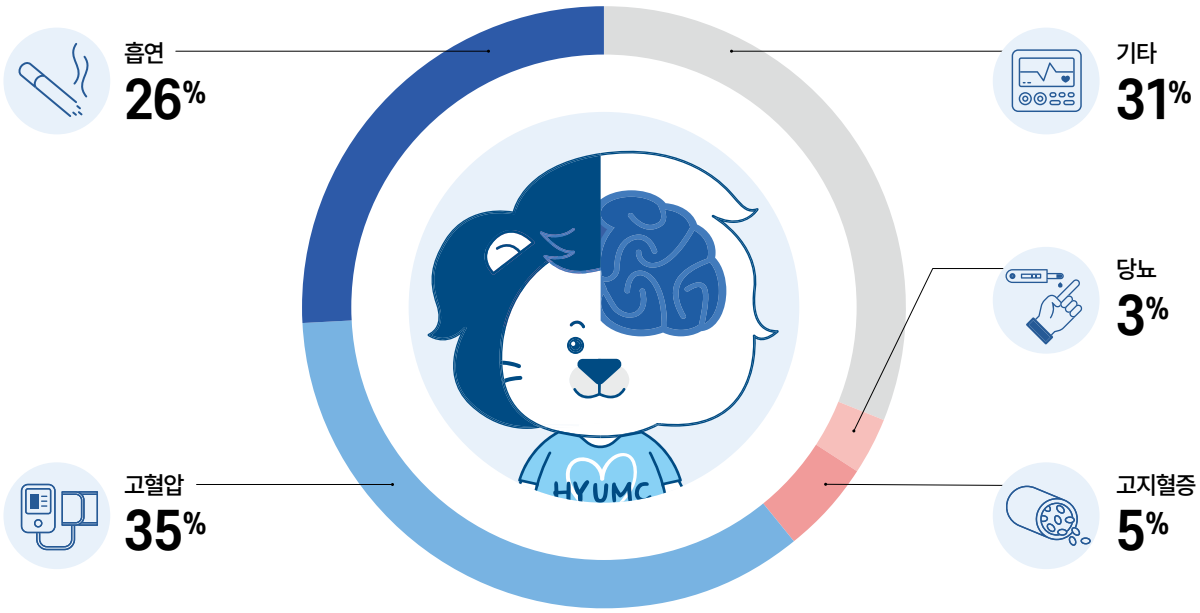
출처: 대한고혈압학회



혈압 분류		수축기혈압(mmHg)		이완기혈압(mmHg)
정상 혈압		<120	그리고	<80
주의 혈압		120~129	그리고	<80
고혈압 전단계		130~139	또는	80~89
고혈압	1기	140~159	또는	90~99
	2기	≥160	또는	≥100
수축기 단독 고혈압		≥140	그리고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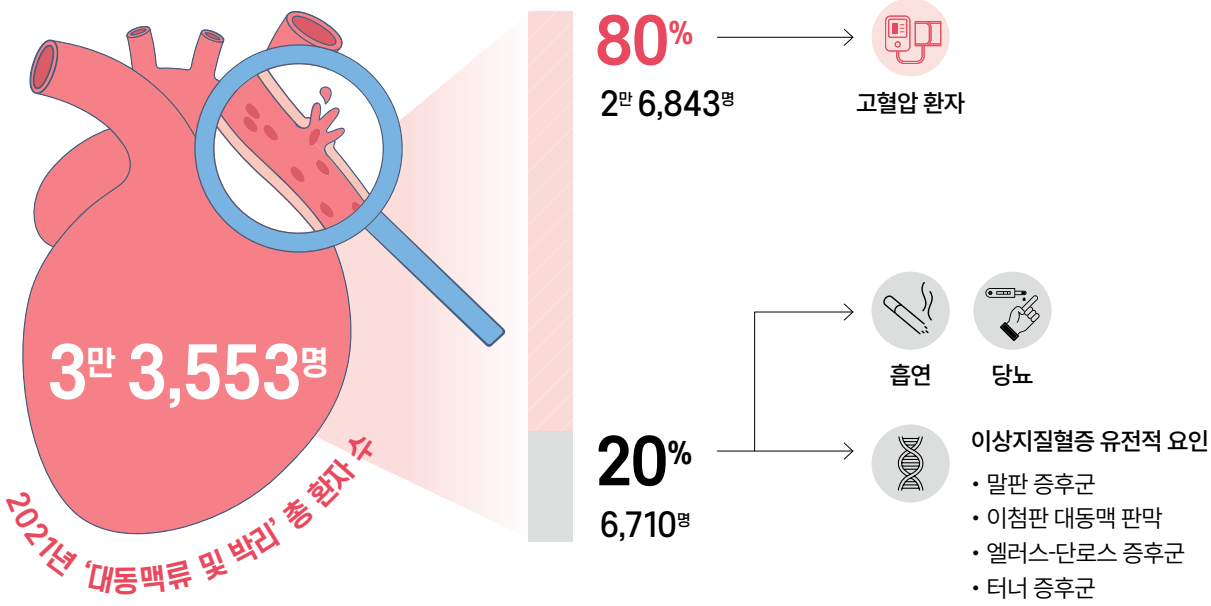
고혈압 및 위험인자의 뇌혈관질환과 상관관계

출처: 국가건강정보포털



고혈압에 의한 대동맥박리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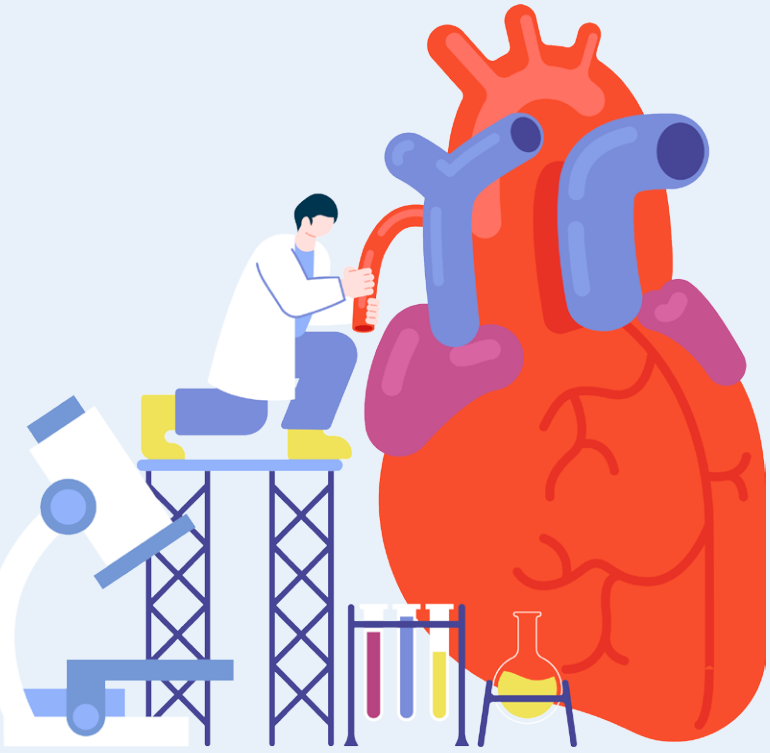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1 젊은 층에서도 돌연사 위험 있다, '고혈압'의 합병증

젊다고 방심할 수 없는 돌연사 위험,

혈관 막혀 괴사하는 심근경색



돌연사, 그리고 심근경색

3인조 혼성 그룹 '거북이'의 리더였던 터틀맨(故 임성훈)이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15년이 되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심근경색이 단순히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사망 당시 그의 나이는 서른여덟으로, 그의 갑작스러운 비보는 30대의 젊은 나이에도 심근경색이 예외 없이 다가올 수 있음을 일깨워 주며, 대중에게 심근경색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 동맥의 혈류가 차단되면서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이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나 불편감으로 증상이 시작되어, 팔, 목, 턱 등으로 방사되기도 하며, 심한 땀, 어지러움, 호흡 곤란이 동반되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들은 수 분에서 수 시간 지속되며, 즉각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정지로 발전하여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다.

심근경색의 원인

심근경색은 관상 동맥의 급격한 폐쇄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는 대개 죽상 동맥경화증으로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인 동맥 경화반(plaque)이 파열되면서, 혈관 내에 혈전이 형성되어 혈류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여러 연구를 통해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흡연 등이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관상동맥질환 환자의 90% 이상이 적어도 한 가지의 위험 인자를 지닌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심근경색과 고혈압

고혈압은 이러한 조절 가능한 위험 요인 중에서 관상동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흔한 원인이다. 혈압은 심장이 혈액을 신체

글. **김우현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심장내과



> 고혈압 치료의 목표는 혈압을 조절함으로써, 혈압 상승에 의한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고,
> 이미 심혈관질환이 발생한 환자에게는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각 부위로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압력을 의미하는데, 혈압이 높으면 심장, 뇌, 신장 등 다른 장기에 부담을 주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여러 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고혈압이 있는 환자들은 정상 혈압인 사람보다 심혈관질환 발생이 많았다. 특히, 혈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위험도는 더욱 증가하는데, 한 연구에서 수축기 혈압 115mmHg와 이완기 혈압 75mmHg를 기준으로 수축기 혈압 20mmHg 혹은 이완기 혈압 10mmHg만큼 증가할 때마다,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2배씩 증가했다.

고혈압 진단과 치료 현황

고혈압 진단 기준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 왔으나, 우리나라 진료 지침에서는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90mmHg 이상을 고혈압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인구의 28%, 약 1,230만 명이 고혈압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나, 인지율과 치료율, 조절률은 각각 74.1%, 7.3%, 56.0%로 여전히 고혈압 치료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여기에 더해 아직도 30~40대 젊은 연령층의 고혈압 인지율, 치료율 및 조절률이 고령자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혈압 치료의 목표 및 필요성

고혈압 치료의 목표는 혈압을 조절함으로써, 혈압 상승에 의한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이미 심혈관질환이 발생한 환자에게는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은 환자일수록 혈압 치료에 따른 이득도 큰데, 여러 임상 연구 결과, 수축기 혈압 10~20mmHg, 이완기 혈압 5~10mmHg를 낮추면, 심근경색 등 관상동맥질환이 15~20%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연구가 단기간 수행되었기 때문에, 5년 이상 장기간 고혈압 치료의 이점은 임상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효과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심근경색의 치료

일단 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되면, 차단된 관상 동맥의 혈류를 조기에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치료 방법은 환자 및 병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혈전을 녹이는 혈전 용해제 치료, 스텐트 시술과 같은 관상동맥질환 확장 성형술, 관상동맥 우회 수술 등의 방법이 있다. 심근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느 치료 방법이든지 빠른 시간 안에 막혀 있는 혈류를 회복시키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2~3시간 이내에 관상동맥 확장 성형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많아지고 있어 대부분의 경우 스텐트 삽입술과 같은 관상동맥 확장 성형술로 치료되고 있다.

스텐트 삽입술과 같은 급성기 치료 이후에는 장기적인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혈전의 형성을 억제하기 위해 항혈소판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심근 회복을 위한 약제 등 역시 필요하다. 또한 심근경색의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인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흡연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02 젊은 층에서도 돌연사 위험 있다, '고혈압'의 합병증

고혈압 방치 결국 터진다, 뇌졸중

고혈압과 출혈성 뇌졸중의 관계



출혈성 뇌졸중이란?

뇌졸중(stroke)은 크게 허혈성 뇌졸중(ischemic stroke)과 출혈성 뇌졸중(hemorrhagic stroke)으로 나눌 수 있다. 그중 출혈성 뇌졸중은 자발성으로 발생하는 뇌출혈을 말하며 작은 뇌동맥이 터져 발생하는 뇌내출혈(intracerebral hemorrhage)과 뇌동맥의 일부가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가 터져 발생하는 뇌지주막하 출혈(subarachnoid hemorrhage)이 이에 해당된다. 전체 뇌졸중 환자의 약 25% 정도가 출혈성 뇌졸중 환자로 알려져 있다.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출혈로 인한 뇌압 상승 때문에 두통, 어지럼증, 울렁거림, 구토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 뇌출혈의 양과 위치에 따라 편마비, 감각저하, 구음장애, 인지저하, 시야장애, 의식저하 등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요인

자발성 뇌출혈의 경우 뇌혈관의 선천성 이상(뇌동정맥루, 뇌동정맥기형, 모야모야병 등)이 아닌 이상 대부분 여러 원인에 의해 뇌혈관이 변화되어 약해진 뇌혈관의 파열에 의해 출혈이 발생하게 된다. 대표적인 위험요인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음주, 마약 등이 해당된다.

고혈압의 경우 자발성 뇌출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위험요소이다. 혈압이 높은 상태가 수년에서 수십 년간 지속되다 보면 혈관벽의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 층이 약해지게 되어 혈관벽이 서서히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가 형성이 된다. 뇌동맥류는 약해진 혈관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혈압이 높은 경우 크기가 증가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뇌동맥류 파열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한번 약해져 늘어나 버린 혈관 벽은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혈관은 대부분 나무처럼 멀리 갈수록 혈관이 갈라지며 혈관의 크기

글. **원유덕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외과



자발성 뇌출혈의 경우 뇌혈관의 선천성 이상(뇌동정맥루, 뇌동정맥기형, 모야모야병 등)이 아닌 이상 대부분 여러 원인에 의해 뇌혈관이 변화되어 약해진 뇌혈관의 파열에 의해 출혈이 발생하게 된다. 대표적인 위험요인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음주, 마약 등이 해당된다.

가 줄어들게 되는데 특정한 부위에서는 큰 동맥에서 가느다란 동맥이 바로 나오는 곳이 존재한다. 이렇게 큰 동맥에서 나오는 가느다란 동맥의 경우 급격한 혈압 변화에 터지기 쉽다. 특히 고지혈증이나 당뇨가 있는 경우 혈관이 더 약해질 수 있어 높은 혈압이나 급격한 혈압 변화에 대한 파열의 위험성이 높다.

출혈성 뇌졸중 치료방법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의 치료는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출혈의 원인이 되는 뇌동맥류를 치료하는 것이다. 파열된 뇌동맥류를 그대로 두게 되면 72시간 안에 다시 터져 재출혈이 발생할 확률이 적게는 8%, 많게는 25%로 보고되고 있다. 재출혈이 되면 예후가 매우 나빠지기 때문에 뇌동맥류에 대한 치료를 최대한 빨리 시행하는 것이 1차 치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뇌동맥류의 치료 방법은 뇌동맥류를 수술용 현미경을 이용하여 찾아 뇌동맥류의 입구를 클립이라고 하는 수술기구를 이용하여 막는 클립 결찰술이 있고 뇌혈관 안으로 미세 도관을 넣어 뇌동맥류 안쪽에 백금 성분으로 만든 코일이라는 물질을 채우는 코일 색전술로 나눌 수 있다. 코일 색전술에 사용하는 기구들의 발전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뇌동맥류의 치료에 있어 클립 결찰술보다 코일 색전술을 더 많이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두 번째로 뇌출혈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뇌동맥류 파열에 의해 뇌지주막하 출혈이나 뇌내출혈, 뇌실내 출혈이 동반될 수 있기에 상황에 따라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하여 출혈을 제거하고 뇌압을 조절하여 환자의 상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뇌내출혈의 경우 출혈의 양이나 위치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 출혈량이 적은 경우 뇌압과 뇌부종을 조절하는 약물치료만으로 출혈을 치료하기도 하며 출혈량이 많은 경우나 뇌압이 높거나 뇌가 출혈 때문에 밀려 의식저하가 심할 경우 수술적 치료를 통해 출혈을 제거하고 뇌압을 조절하기도 한다. 도관(카테터)을 출혈의 중심 부위에 넣어 피를 녹여 밖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수술적 방법도 있다. 또한 출혈량이 많은 경우 직접 머리를 열어 출혈을 제거하고 지혈을 하며 뇌부종이 심한 경우 뇌압 조절을 위해 머리뼈를 덮지 않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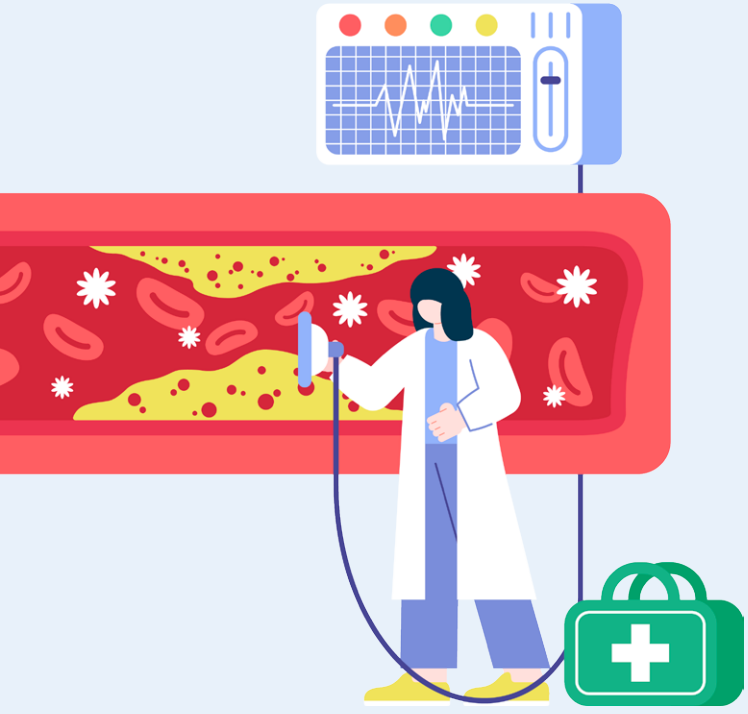
출혈성 뇌졸중 예방법

출혈성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전략이 있다. 첫째,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정기 검진을 통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질병을 확인하고 필요시 약물치료를 통해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진상 우연히 뇌동맥류가 발견이 되었다면 뇌혈관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뇌동맥류에 대한 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위험요인 대부분이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차이를 현재는 못 느낄 수 있어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한다면 지금 귀찮더라도, 약 먹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출혈성 뇌졸중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에 대한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둘째, 금연과 절주가 필요하다. 흡연의 경우 담배 성분으로 인하여 혈관에 지속적으로 염증반응을 일으키게 되며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뇌혈관질환의 위험성 또한 높아질 수 있다. 음주의 경우 소량의 술은 혈관에 좋다는 연구결과들도 보고가 되고 있지만 과도한 음주의 경우 혈압의 변동폭을 증가시켜 결국 혈관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절주 또한 뇌혈관질환의 예방에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꾸준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어떤 분들은 약 먹기가 싫어 운동을 하겠다고 약 먹기를 미루기도 하지만 결국 운동도, 투약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뇌혈관의 건강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3가지 전략을 동시에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03 젊은 층에서도 돌연사 위험 있다, '고혈압'의 합병증

대동맥박리 환자 70~90%는 고혈압 환자

혈압약, 대동맥박리증의 유일한 예방법



조절되지 않은 혈압은 혈관 건강에 최악의 조건

50대 중반의 남성환자가 극심한 등쪽의 통증으로 응급실로 내원했다. 회사에서 중책을 맡고 있던 환자는 10년 전부터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최대한 약을 늦게 먹기 시작하고 싶어서 병원 방문을 주저해왔다. 최근에는 업무가 잘 풀리지 않아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어제는 과음을 했다. 응급실에서 CT촬영을 했고 대동맥박리증이 진단되어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다. 이는 대동맥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심장혈관흉부외과 의사가 응급 대동맥박리 수술을 집도하게 되는 아주 대표적인 시나리오이다.

대동맥박리란 글자 그대로 대동맥이 찢어지는 상황이다. 대동맥은 세 개의 층으로 되어있는데 그 중 제일 안쪽에 있는 내막이 찢어지게 되면 혈류가 내막과 중막 사이로 유입되어 위아래로 혈관을 박리하며 가성 내강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찢어진 대동맥은 안쪽에 흐르는 혈액의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질 위험성이 높은 조건이 되는데, 대동맥이 터지면 대량 실혈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수분안에 사망하게 된다. 또한 혈관이 터지지 않더라도, 찢어진 내막이 팔랑거리며 진성 내강을 막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현상이 뇌나 복부장기 등 중요한 장기에 발생하게 되면 뇌졸중이나 장 허혈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일로 병원에 도착하지 못한 채로 사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유추하고 있고, 병원에 도착하여 응급수술을 바로 계획한다 해도 수술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급성 대동맥박리증은 증상 발현부터 1시간 지날 때마다 1%씩 사망률이 높아지고, 48시간 동안 절반 이상이 사망할 수 있는 무서운 상태이며, 응급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대동맥박리증의 치료

대동맥박리증은 CT 검사를 통해 찢어진 혈관벽을 발견하면서 진단하게 되는데, 치료는 크게 대동맥박리의 분류법인 Stanford type A냐

글. **김완기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대동맥박리증은 발생하고 나면 사망률과 합병증 발생률이 매우 높은 아주 심각한 질환이므로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동맥박리증이 생기기 가장 쉬운 조건은 고혈압으로, 고혈압이 있는 환자분은 혈압조절을 잘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예방법이다.

type B냐에 따라 달라진다. 대동맥은 해부학적으로 상행 대동맥과 하행 대동맥으로 나뉜다. 상행 대동맥이 찢어진 Stanford type A는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한다. 그 이유는 찢어진 상행 대동맥을 그냥 놔두었을 경우 대동맥 파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 6시간 안에 25%, 그리고 하루 안에 절반 이상의 환자가 사망하게 된다. 수술적 치료는 찢어진 상행 대동맥을 인조혈관으로 교체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머리로 가는 혈관 분지를 전부 교체해야 하는 대동맥 궁 교체술이나 대동맥 판막이 있는 대동맥 근부 교체가 필요할 정도로 수술 범위가 확대되기도 한다.

Type B 대동맥 박리증은 합병증이 동반유무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지게 된다.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라 함은 찢어진 혈관 내벽이 혈관 입구를 막아 허혈이 진행되는 경우나 대동맥이 파열되어 출혈이 되는 경우를 이야기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스텐트 치료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적 교정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대동맥박리증의 예방

대동맥박리증은 발생하고 나면 사망률과 합병증 발생률이 매우 높은 아주 심각한 질환이므로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동맥박리증이 생기기 가장 쉬운 조건은 고혈압으로, 고혈압이 있는 환자분은 혈압조절을 잘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예방법이다. 가끔 의사로부터 혈압약 복용을 권유 받았는데도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복용하지 않는 환자들이 있는데, 이런 선택은 굉장히 위험하다. 혈압약을 최대한 늦게 먹어서 약을 먹는 기간을 줄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미 약을 안 먹으면 안 되는 혈압이 높은 상황이 되었는데도 약을 안 먹는 것은 폭탄을 짊어지고 사는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글. 전혜정 사진. 안용길

바이올린의 선율에 사랑을 담아 연주하는 의사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료진의 음악을 통한 재능기부



오재원 한양대학교의료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문 원 한양대학교국제병원 종합검진센터 교수

tvN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를 보면 밴드활동에 진심인 의사 5명이 등장한다.
한양대학교의료원엔 밴드는 아니지만 오케스트라, 클래식 음악에 진심인 의사가 있다. 이들은 바이올린 선율에 사랑을 담아 환자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치유해준다. 의사이면서 바이올린 연주자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음악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료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본다.



치유의 음악을 선보이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엔 키론(Chiron)이라는 오케스트라 동호회가 있다. 키론은 그리스로마신화 속에 등장하는 음악과 의술에 조예가 싶은 신이면서, 교육의 신이기도 하다. 의과대학 내 오케스트라에 이보다 더 알맞은 이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오케스트라 동아리에 '키론'이라는 이름을 붙인 장본인이자, 회장단으로 활동했던 한양대학교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오재원 교수와 어린 시절부터 '의대생이 되면 오케스트라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다'는 꿈을 가졌다는 한양대학교국제병원 종합검진센터 문원 교수는 현재 코리안 닥터스 오케스트라(Korean Doctors Orchestra)소속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코리안 닥터스 오케스트라는 전국의 병원과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이 모여 2020년 창단했다. 소속 단원 모두 각 의과대학에서 대학생 시절 오케스트라 활동을 했고,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이다. 코리안 닥터스 오케스트라는 창단하자 마자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으로 모든 활동 및 연습이 중단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하지만 긴 기다림 끝에 2022년 여름에 첫 연습을 시작으로 그해 11월 27일 창단 연주회를 개최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환우를 위한 음악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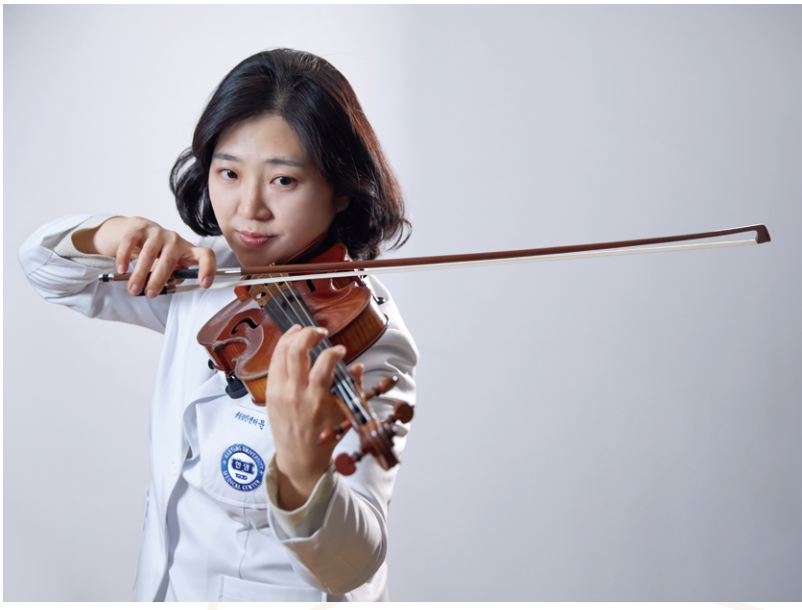


오재원 교수는 “2020년부터 음악하는 전국의 의사들이 모여 오케스트라를 창단했다. 다들 음악에 목 말랐던 것 같다”면서 “처음 창단할 때는 서로의 실력을 모르니까 얼떨결에 악장을 맡게 됐다. 악장의 역할이 엄청 중요한데 너무 대충한 것 같다”라며 웃어보였다.
오 교수와 함께 퍼스트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문원 교수 역시 “다시 오케스트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설레었다”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전국에 있는 의사·치과의사가 함께 하는 단체이다 보니 모이기 쉽지 않고, 함께 모여 연습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지만 음악이 주는 즐거움이 힘들고 어려운 걸 이겨내게 한다”라며 단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나타냈다.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문화 예술 활동

일반 오케스트라와는 달리 코리안 닥터스 오케스트라는 클래식 음악 연주를 사랑하는 의사와 치과의사 70여 명으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이다. 연령층도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하고 진료 분야도 서로 다르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 아동·청소년의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격차 해소를 돕기 위해 연주한다는 따듯한 뜻은 단원 모두가 같다. 그래서 단순히 클래식 음악만을 연주하고 즐긴다기보다는 재능기부, 또는 앙상블 연주회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의사로서의 바쁜 생활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최상의 연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리안 닥터스 오케스트라의 70여 명의 단원들이 한날한시 한자리에 모이기란 쉽지 않을 터. 하지만 시간이 맞는 단원들이 모여 앙상블 연주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함께 연 2~4회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했고, 2023년에는 장안동 ‘성북행복한 홈스쿨’과 일원동 ‘비전학교’에서 작은 음악회를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개최했다.
오 교수는 “2024년에는 더 많은 지역의 아이들과 소통하고 싶다”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코리안 닥터스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재능 있는 저소득층 음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그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을 레슨 하면서 아이들이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악기를 접한 아이들이 또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스스로 악기를 배우고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



음악이 있기에 전인적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랑을 연주합니다.



‘환우를 위한 음악산책’을 통한 소통

단순히 의학적인 지식만 가지고 하는 치료는 지양해야 한다는 오재원 교수. 그는 “제대로 전인적인 진료를 위해서는 의학지식 외에도 반드시 예술이나 문학, 운동 등 다른 취미가 병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취미라는 것이 단순히 재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재미와 의미가 함께 공존해야 합니다. 이런 취미 활동을 통해 다른 분야의 삶을 알게 되면서 이것이 전인적 진료에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오 교수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 2003년부터 매달 마지막 금요일 ‘환우를 위한 음악산책’ 콘서트도 재능기부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진료실에서 의학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음악을 통해서 환자들과 소통하는 것이 좋아서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잠깐 멈추었지만 2024년부터 다시 재개해 환자들과 음악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고 소통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원 교수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권유에 바이올린을 시작했고, 바이올린 연주가 좋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의대생이 되면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고, 그 꿈을 이룬 셈이죠. 물론 하기 싫을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바이올린을 할 때 즐거웠어요. 즐거우니까 계속하게 됐고, 이 즐거움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이올린 연주라는 취미가 없었다면 삶이 굉장히 무료했을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한 일, 남을 위한 봉사

음악을 통해 취약계층, 환우들을 위해 봉사하는 오재원 교수와 문원 교수. 이들은 2024년 8월 월드 닥터스 오케스트라(World Doctors Orchestra) 연주에도 함께 할 예정이라고 한다. 월드 닥터스 오케스트라는 전 세계 의사들의 오케스트라 모임으로 매년 세계를 돌며 연주회를 개최한다. 진료만으로도 바쁜 데 어떻게 이렇게 오케스트라와 음악에 진심인 걸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 남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이 필요한데요. 그 소통의 방법으로 음악을 선택한 거죠. 오케스트라야 말로 소통의 진수를 보여주는 활동이고요.”

문 교수는 “키론 활동을 하다가 현업이 바빠서 음악과 멀어지는 동료, 선후배 의사들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함께 음악하는 동료 의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음악이 있어 지칠 때 위로를 얻고,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다는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료진은 오늘도 따듯한 마음을 담아 치유의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제1회 코리안 닥터스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주목할 만한 연구

연구자. **오재훈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병원 밖 심정지 생존 환자의 우울증 또는 불안장애와 장기 사망률 분석

"심정지 생존자 중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장기 사망률이 약 1.4배 더 높았다."

국제학술지『JAMA Network Open』2023년 4월에 실린 'Analysis of Anxiety or Depression and Long-term Mortality Among Survivors of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중에서

심정지 회복 환자에서 우울증과 불안장애 발생이 장기 사망율을 높여

국내 병원 밖 급성 성인 심정지 환자 수는 연간 약 3만 명이며, 주로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5개의 생존사슬 [1. 심정지 인지 및 신고 - 2. 고품질의 심폐소생술 - 3. 신속한 제세동 - 4. 전문심장구조술 - 5. 심정지 후 통합치료]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한다. 2020년 미국심장협회에서는 심정지 환자의 생존사슬에 여섯 번째 고리로 '회복'을 추가했다. 이 연구는 심정지 회복 환자들의 우울증 또는 불안장애의 유병률을 조사하고, 장기 사망률과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연구팀은 2005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병원 밖 심정지 환자 중 1년 이상 생존한 성인 환자 2,373명의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조사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우울증 또는 불안장애를 진단을 받은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최대 14년까지 장기 사망률 평가했다. 전체 환자 중 397명(16.7%)이 심정지 발생 후 1년 이내에 우울증 또는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251명(10.6%)은 우울증, 227명(9.6%)은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 두 가지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에 비해 장기 사망률이 41% 높았다. 특히, 우울증 진단을 받은 환자의 사망 위험은 44% 더 높았다. 이러한 발견은 심정지 회복 환자들의 장기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존자를 위한 심리적, 신경학적 재활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연구는 세계적 학술지인 『자마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 피인용지수: 13.36)』에 '병원 밖 심정지 생존 환자의 우울증 또는 불안장애와 장기 사망률 분석(Analysis of Anxiety or Depression and Long-term Mortality Among Survivors of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이라는 논문으로 게재되었다.

심정지 회복 환자들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치료 계획과 장기적인 관심을 가져야

연구팀은 심정지 이후 환자에게 발생하는 우울증과 불안은 심정지로 인한 특징적인 신체와 환경적 요인 변화들이 직간접적으로 더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명했다.

심정지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 후 조기 심정지 후 통합치료(체온조절요법 등 중환자 치료)후에 환자가 안정되어가는 시점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신속히 개입하여 환자의 정신건강상태를 평가하고, 약물을 포함한 장기 플랜을 세우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하고 오래 생존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의 장기적인 신체적, 신경학적, 인지적 그리고 정신건강의학적인 다각적인 관찰과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계획까지 필요하다. 또한, 환자와 더불어 가족들의 지지와 사회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 논문은 미국정신건강의사협회(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신문인 Psychiatric News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였다.

직접적인 요인

저산소증 뇌병증으로 인한 신경전달물질(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GABA 등) 혹은 호르몬 분비 관련 부위에 연관된 변화

간접적인 요인

1.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인한 신체적인 장애나 후유증
2. 심정지 후 발생한 여러 장기들의 만성질환 발생(심기능부전, 신부전 등)과 그로 인한 일상 생활이 불가능
3. 여러 신체적 장애로 인한 활동 제한과 사회경제적 고립으로 발생하는 2차적인 우울증 발생
4. 심정지를 유발한 원인 혹은 후유증을 조절하는 약물(예: 베타차단제, 디곡신, ACE 억제제 등의 심혈관계 약물, 레비트리아세탐, 토피라메이트 등의 항경련제, 벤조디아제핀 등 항정신병약물)들의 부작용

Remarkable research



◀ Analysis of Anxiety or Depression and Long-term Mortality Among Survivors of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병원 밖 심정지 생존 환자의 우울증 또는 불안장애와 장기 사망률 분석

글. **최준호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마음의 병이 깊어요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속 오리나의 양극성장애

조울증은 정식 진단 명칭으로 양극성장애라고 한다.
양극성장애는 I형과 II형으로 구분한다. I형과 II형은 우울한 기분의
반대되는 조증상태의 유무로 판단한다. 있는 경우 I형,
조증은 없는 대신 경조증과 우울증의 상태가 있는 경우 II형으로 진단한다.



웹툰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는 공개되자마자 OTT분야 1위를 차지하며 연일 화제이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금수저 오리나(정운선). 그녀는 어려서부터 엄마의 뜻대로만 살아오면서 가면 속에 자신을 숨겨 지내다가 조울증(양극성장애)을 겪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게 된다. 조증이 올라올 때는 발가벗고 춤을 추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고, 울증으로 바뀌면 자리에서 몸을 일으킬 수 없을 만큼 극심한 무기력에 시달린다. 오리나의 어머니는 "우리 딸이 왜 이렇게 되었냐"고 물으며 "어려서부터 좋다는 것만 시키고 금지옥엽으로 키웠는데 그게 말이 되냐"라며 화를 낸다. 오리나가 겪고 있는 조울증(양극성장애)란 무엇이고, 증상, 치료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양극성장애의 원인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하나의 원인보다는 유전적, 생물학적, 환경적, 심리적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생각된다. 특기할 점은 우울증보다는 유전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명인의 가계에서 밝혀진 가족력이 존재한다. 영국의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끈 처칠의 가계가 대표적이다. 환자의 친족은 일반인보다 5~10배의 높은 유병률을 나타낸다.



양극성장애의 진단방법

철저한 과거력과 현재의 증상에 대한 병력 청취를 통해 얻은 정보를 가지고 표준진단 기준인 DSM-5(미국 정신과학회 진단기준 5판)에 따라 진단한다. 제일 중요한 조증 상태는 비정



상적으로 들뜨거나 의기양양하거나 과민한 기분, 그리고 목표지향적 활동과 에너지의 증가가 나타나며 그 기간이 1주일간 지속되어야 인정된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은 조증 상태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손상이 있어 생활이 불가능하고 자·타해 위험이 있어 입원 등을 통해 안전의 확보가 필요할 정도이며 현실감의 결여를 가져오는 정신병적 증상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는 달리 경한 상태이면서 정신병적 상태가 보이지 않는 경우를 경조증 상태라고 하며 이런 상태만 있는 경우는 양극성장애 II형이라고 한다.

양극성장애의 증상

조증 또는 경조증과 같이 정상보다 기분이 상승한 상태와 우울한 상태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난다. 기분이 상승한 경우는 과민한 상태, 유쾌한 기분, 대범한 기분, 불안정한 기분으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과도한 에너지와 활동, 말이 많아지고 계획을 많이 세우는 활동이 과대해지며 과감해지다 보니 돈을 많이 쓰고 크게 사업을 벌여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과도한 정신 활동성으로 인해 주의가 산만해지고 판단력이 떨어져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양극성장애의 치료법

기분안정제를 사용하여 고양된 기분과 우울한 기분 모두에 대해 안정성을 부여한다. 대표적인 약물은 리튬이나 복잡하고 다양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처방을 요한다. 리튬 외 발프론산, 카르마제핀과 같은 약이 기분안정 효과가 인정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전형적 항정신성약물이 항조증 효과뿐만 아니라 항우울제로서의 효과를 보이고 있어 널리 쓰인다.

치료 후 관리

조증과 경조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에 안정적인 외래치료를 받기 위해 꾸준한 약물복용이 필요하다. 즉,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환자의 사회적 기능 발휘를 지속하게 하는 길이 된다. 병식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갖게 되기에 안정적인 기분 상태가 되면 자발적인 치료를 받는다. 행동 문제의 발생이 되는 조증 또는 경조증에만 치료 초점을 맞추면 안 되며 실제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에는 대부분 환자의 일상에서 겪는 우울증 상태를 잘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통상의 항우울제는 기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피해야 한다. 대개 양극성장애의 우울증 상태는 기분안정제를 잘 처방하고 적절한 약물을 선택하는 것으로 치료될 수 있다.



글. **전혜정** 사진. **안용길**

임신에서 출산까지
All-Round care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협력병원 / 삼성프라임산부인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서 가장 큰 산부인과이자 분만까지 가능한 병원으로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삼성프라임산부인과. 산부인과는 개원보다는 폐원하는 병원이 더 많을 정도로 국제적인 위기라고 하는 요즘, 분만까지 하는 병원을 운영하기는 쉽지 않을 터. 이에 강재홍 대표원장은 "가족을 돌보는 마음으로 진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에 가능하다"면서 지역민에게 인정받는 산부인과가 되는 것이 목표라며 환자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케어하고 있다.



분만가능한 산부인과

삼성프라임산부인과는 2019년 남양주 시내에 전문병원으로 개원했다가 분만 시 병원을 이동해야 하는 산모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지난 2023년 7월 분만까지 가능하도록 재정비를 통해 다산신도시로 확장 이전했다. 우리나라는 2023년 개원한 산부인과가 단 2곳에 그칠 만큼 개원보다 폐업하는 산부인과의 수가 월등히 많고, 2022년 기준 출산율 0.78명일 정도로 초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분만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 개원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터. 어떤 마음으로 개원을 결심하게 됐을까.

강태홍 대표원장은 "분만병원이 없으면 분만이 임박한 산모의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산모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 가족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병원이 없어 헤맨다고 생각하면 아찔하죠. 이럴 때일수록 분만을 전문으로 하는 산부인과 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개원하게 됐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삼성프라임산부인과는 산부인과 전문의 3명과 마취과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상주하며 산과 및 부인과 특화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세분화된 클리닉으로 신뢰도 UP

삼성프라임산부인과는 난임, 피임, 산전검사, 습관성 유산 등과 관련한 산과클리닉 여성암, 폐경기, 부인과 염증과 관련한 부인과클리닉 세분화해 진료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는 건강한 임산과 출산, 여성 건강을 위해 섬세하고 정확하게 진료하기 위해서이다. 강 원장은 "신속 정확한 진료와 세심한 클리닉을 위해 대학병원급 최첨단 장비를 구축하고, 환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신경쓰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난임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시다가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저희 병원에 오셨던 환자가 기억난다"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 환자분은 시험관 시술을 8차례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몹시 지친 상태셨어요.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저희 병원 산과클리닉을 방문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병원이 난임전문병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환자분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죠. 사실 제가 한 일은 편안한 마음을 가져 임신하실 수 있게 해드린 것뿐인데 자연임신에 성공하고 지난 10월에 출산하셨어요. 그때 정말 너무 기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분만전문병원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체계적인 협진으로 최상의 의료 서비스 선보여

다산으로 확장 이전하면서 맺게된 인연이라 그리 기간은 길지 않지만 한양대학교구리병원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이어가며 오래 협진한 병원 못지 않게 두터운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갑상선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고위험 산모나 폐경기 여성들 중 정밀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한양대학교구리병원으로 연계해 전문적인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태홍 원장은 "앞으로도 한양대학교구리병원과 함께 경기도 남양주시 지역주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산부인과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라며 덧붙혔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고위험 산모, 폐경기 여성들의 가이드 역할을 하며 1차 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뢰'가 모든 치료의 시작이니까요. 앞으로도 삼성프라임산부인과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과 함께 협력하여 환자에게 더 큰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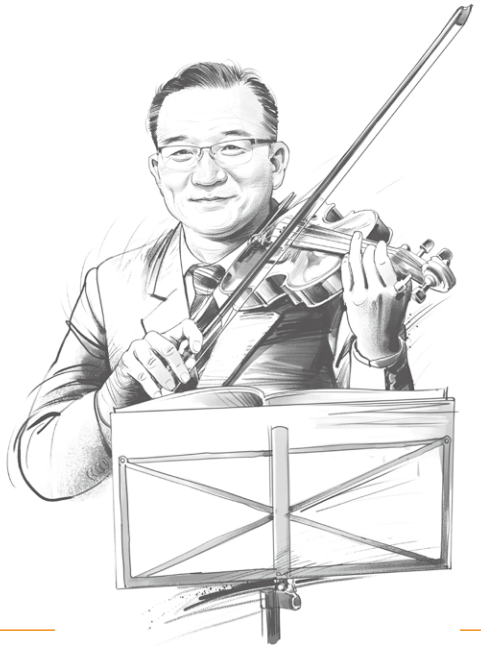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46길 12-12
문의 031-568-1110

Dr. Opera

단테의 〈신곡〉을 인용,
삶의 고뇌와 죽음을 그린
3부작 오페라







지아코모 푸치니 오페라 3부작 〈일 트리티코〉

Giacomo Puccini Opera <Il trittico>

단막 오페라 3편, 〈외투〉, 〈수녀 안젤리카〉, 〈잔니 스키키〉를 하나로 묶어서 3부작 오페라로 1918년 12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초연한 색다른 걸작이다. 1904년 무렵, 마스카니의 단막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의 성공을 눈여겨보던 푸치니는 자신에게 충격적인 감동을 준 단테 〈신곡〉에서의 저승 세계(지옥, 연옥, 천국)를 단막 오페라의 주제로 정하고 곡을 썼다. 그러나 〈잔니 스키키〉만 단테의 시를 직접 대본에 반영했을 뿐이고 나머지 작품은 주제만 반영하였다. '일 트리티코'는 3면 병풍처럼 제작된 제단화로 가정에서도 옷을 갈아입을 때나 장식용 가리개로 쓰인다. 대개 그 3면에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거나 통일된 주제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푸치니는 이 3부작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관조하고 있다.

단테의 〈신곡〉 중 '지옥' 편에 해당하는 〈외투〉는 하층사회에서의 인간의 처절한 애욕을 표현하였는데, '외투'는 우리의 인생에서 때로는 따뜻하게 안아주기도 하고 괴로움을 달래주기도 하지만 주검을 숨기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 작품에서는 죽음을 처절하게 다루고 있다. '연옥' 편에 해당하는 〈수녀 안젤리카〉는 상류사회의 위선적인 여인의 고뇌를 표현하고 있는데, 자기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젊은 수녀가 천사의 도움으로 죽은 자신의 아이를 만나게 된다는 줄거리이다. '천국' 편 〈잔니 스키키〉는 죽은 노인의 유산 다툼을 날카로운 풍자를 통해 인간의 욕망을 그리고 있다. 이들의 공통적 주제는 삶의 고뇌와 죽음이다.

제1편 외투(Il tabarro) 1910년 센 강변 유람선 어둡고 음울한 톤으로 가득 차고 폭력이 난무하는 전형적인 베리스모 오페라이다. 비극적인 결말을 암시하는 음악과 함께 막이 열린다. 배에서는 인부들이 짐을 나르느라 분주하다. 화물선의 선주 미켈레는 그의 젊은 아내 조르제타에게 사랑의 키스를 하려 하지만 냉정히 거절당하자, 기분 나빠하며 선실로 들어간다. 그는 인부들과 술을 마시자 젊은 아내는 어린 루이지하고만 춤을 춘다. 미켈레와 낳은 아기가 죽은 뒤엔 남편 몰래 루이지와 사랑을 하고 있다. 술에 취한 팅카가 쓸쓸히 가버리자, 플루골라는 시골의 집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 소원이라 노래하고, 조르제타와 루이지는 화려한 파리 생활을 동경하여 물 위 헛된 생활을 버리고 싶다며 2중창을 부른 후 조르제타와 루이지는 사랑을 나누고 나간다. 선실에서 미켈레가 나와 아내에게 사랑을 노래하지만, 그녀는 냉정히 거절하자 상심한 미켈레는 무심코 성냥불을 켜서 담배에 불을 붙인다. 이때 그것이 조르제타의 신호로 오인한 루이지가 들어오자 불륜의 진상을 알게 된 미켈레는 루이지를 죽이고, 놀라 달려온 조르제타가 나오자 외투로 시체를 덮는다. 남편의 태도에 겁먹은 그녀가 전처럼 외투로 감싸달라고 유혹하자 그는 가까이 오라며 그녀도 죽여 루이지와 함께 강에 던져 버린다.

제2편 수녀 안젤리카(Sour Angelica) 17세기 후반 시에나 근교의 수도원 푸치니가 3곡 중 가장 아꼈던 작품이다. 수녀 안젤리카는 피렌체 귀족

글. **오재원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오재원 교수는 미국 존스홉킨스 앙상블과 스탠포드 팔로 알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제1바이올린으로 활약한 바 있다. 이러한 고전음악에 대한 사랑을 환자를 비롯한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필하모니아의 사계: 클래식501〉이라는 클래식 안내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들을 만한 ALBUM



미렐라 프레니(라우레타, 조르제타),
레오 누치(스키키),
로베르토 알라냐(리누치오),
후안 폰즈(미켈레),
브루노 바르톨레티(지휘),
피렌체 오페라(Decca, 1994)



레나타 테발디(라우레타, 조르제타),
페르난도 코레나(스키키),
마리오 델 모나코(리누치오),
줄리에타 시미오나토(공작부인),
람베르토 가르델리(지휘),
피렌체 오페라(Decca, 1962)



아마릴리 니차(라우레타, 조르제타, 안젤리카),
알베르토 마스트로마리노(스키키, 미켈레),
율리안 레이놀즈(지휘),
모데나 시립 오페라(TDK DVD, 2007)

의 딸로서 부모가 허락하지 않은 아이를 낳았다며 7년 동안 수녀원에 들어가 참회의 생활을 보내고 있다. 교회의 종소리와 함께 막이 올라가면서 수녀들은 아베 마리아를 부른다. 잠시 후 수녀원장이 훈계의 말을 한다. 이때 수녀 제노베파가 정원 샘물이 햇빛에 황금빛으로 빛난다며 성모 마리아의 기적이라고 기뻐한다. 한편 전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비안카 로오자라는 수녀가 죽은 것을 상기한다. 안젤리카는 성모 마리아에게 구원을 바라는 노래를 부르자 원장은 속세의 희망을 버려야 한다고 훈계한다. 얼마 후 많은 선물을 실은 훌륭한 마차와 함께 안젤리카의 큰어머니인 공작부인이 등장해 그녀에게 결혼하는 그녀의 여동생에게 재산을 양도한다는 서류에 서명을 강요하며, 그녀의 과거를 힐책한다. 안젤리카는 7년 전 헤어진 자식의 소식을 그녀에게 묻자 병으로 죽었다고 거짓으로 말한다. 놀란 안젤리카는 슬픔의 아리아를 부르고 공작부인은 떠나버린다. 깊은 밤 묘지 앞 그녀는 독약을 마시고 자살하며 성모 마리아에게 용서를 빈다. 어디선가 천사의 합창이 들려오고 신비로운 빛으로 감싸인 성모 마리아가 그녀의 자식을 데리고 나타나 곁에 놓는다. 마지막으로 자식 곁으로 힘들게 다가가면서 합창 속에 숨을 거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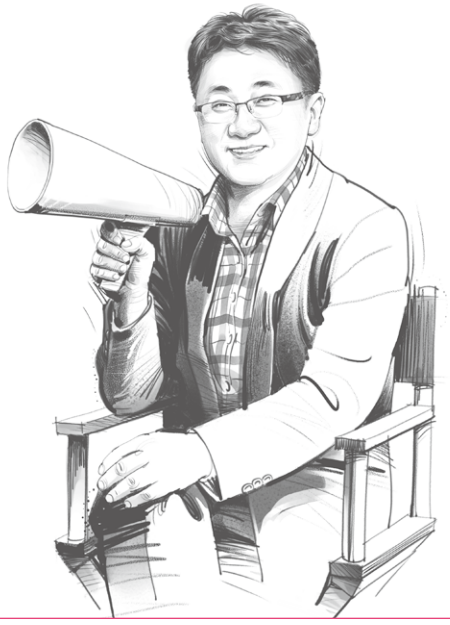
제3편 잔니 스키키(Gianni Schicchi) 1299년 피렌체의 거부 부오조 도나티의 침실 사망한 부오조 침대 옆 애도하는 척하는 친척들이 그의 유산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변호사 배토가 부오조의 재산이 수도원에 기증되었다고 말한다. 그러자 모든 유산은 물거품이 된다며 당장 유언장 초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하고 리누치오가 유언장을 찾아낸다. 그는 친척들에게 부오조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자신과 라우레타와 결혼을 승인해 달라고 약속받는다. 그는 라우레타와 그녀의 아버지인 지혜로운 잔니 스키키와 상의할 것을 제안한다. 그는 피렌체에 많은 공헌을 한 바 있는 현명한 자라고 노래한다. 얼마 후 스키키와 라우레타가 도착한다. 라우레타는 스키키에게 리누치오와 결혼하게 해달라며 유명한 아리아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부르자 그는 마지못해 딸의 부탁을 수락한다. 스키키는 일단 부오조의 시신을 다른 방으로 옮기고 그의 침대 위는 아직 생존한 것처럼 꾸미라고 지시한다. 잠시 후 의사 스피넬로치가 진찰하러 오자 스키키는 의사를 돌려보낸다. 새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친척들은 스키키에게 자신들의 배분을 말하자 스키키는 그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로 약속한다. 그는 공증인에게 새 유언을 받아 적게 한다. 새 유언장의 내용에는 친척들에게 기본 분배만을 한 후, 당나귀와 별장, 방앗간은 가장 친한 친구 스키키에게 준다고 하자 모두 격분하지만, 허위 유서가 탄로가 나면 벌을 받으니 어쩌질 못한다. 공증인이 나가고 친척들이 덤벼들지만 이제 집의 주인은 스키키가 되어 쫓겨난다. 정원에서 사랑하는 연인이 2중창을 부른다. 스키키는 유산이 좋은 곳에 쓰일 것이고 딸의 행복을 위한 자신의 죄에 대해 청중은 무죄 판결을 내릴 것이라며 막이 내린다.

Dr. Movie

인생은 대략
덧없다

내 인생의 영화 94







floccinaucinipilihilification(혹은 floccinaucinihilipilification)이라는 영어단어가 있다. 무려 29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졌는데 의외로 뜻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함', '무가치'라는 허무한 뜻이라고 한다. "flocci-(조각)+nauci-(하찮음)+nihili-(아무것도 아님)+pili-(털 한 터럭) +행위를 일컫는 fication."

고우영이라는 화백이 있었다. 중국 4대 기서인 수호지, 삼국지, 서유기, 금병매(금병매는 확실치 않다), 이외에도 열국지, 초한지, 십팔사략 등을 자신의 고유한 해석을 곁들여 19금으로 버무려 낸 섬세하고 고운 그림과 직접 쓴 단아한 글씨체가 매력적이었던 분이셨다. 이 중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이 파놓은 덫에 걸려 전쟁에서 계속 지면서 도망 중에 잠시 나무그루에 앉아 숨을 헐떡이던 천하의 조조가 하늘에 뜬 구름(浮雲)을 보면서 뇌까리는 장면에서 말풍선에 가득 차 있던 대사가 바로 이 단어였다. 이 말을 처음 접했던 중학생 시절부터 이 단어는 내가 인생에서 벽에 부딪힐 때마다 중얼거리던 주문(呪文)이 되었다.

덧없다, 가치가 없다는 말은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한다. 잘 나가던 연예인이 마약에 불륜에 그도 아니면 표절에 세금 포탈 때문에 중도하차를 하게 된다. 정치인은 더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엮이면 좀처럼 회복하기 힘들어지게 된다. 그럴 때마다 사람은 자신의 내부와 외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거울을 좀 더 자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항상 떨어질 때와 가라앉을 때를 생각하고 스스로 떳떳해지기 위해서 어떤 담론을 꺼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준비하지 않으면 나와 내 주변을 포함해서 세상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릴 거라는 존재론적 회의론이 들게 된다.

빌 머레이는 냉소적(cynical)이고도 허무주의적(nihilistic)인 불만투성이 투덜이인 자기중심적인 TV 기상통보관이다. 매년 2월 2일 개최하는 성촉절이란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폭설이 내리던 펜실베이니아의 어느 마을로 향했던 그는 어떤 때처럼 건성건성 방송을 끝낸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그는 어제와 똑같은 라디오 DJ의 멘트를 듣고, 어제처럼 축제 준비에 여념이 없는 마을의 모습을 보게 된다. 자신에게 내려진 영원한 시간의 반복에 대해 처음에는 호기롭게 대응하는데, 여자 유혹하기, 돈가방 훔치기, 축제를 엉망으로 만들기 등에도 여지없이 같은 장소에서 눈을 뜨게 되자 자살하지만 다음 날도 똑같은 라디오 방송을 들으며 잠을 깨는 자신을 보며 절망하게 된다. 그는 선고가 내려진 사형수처럼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일기를 예보하는 것처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 하루를 예보하고 마치 대한민국 홍반장처럼 위기 상황에 대응한다. 내내 함께 있던 PD 리타에게 어느덧 사랑을 느낀 그는 그녀의 사랑을 얻게 된 다음 날 아침 새로운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된다. 〈사랑의 블랙홀, 1993〉은 시간에 갇혀버린 주인공이 불현듯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고 마음먹으면서 자기 계발(도레미밖에 몰랐던 그가 후반부에서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곡을 연주하게 된다)을 하고 주변

글. **이형중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이형중 교수는 기자를 꿈꾸던 학창시절의 재능과 영화에 대한 사랑을 더해 '영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그의 글이 깊이 있으면서도 쉽게 읽히는 까닭은 해박한 영화 관련 지식을 풀어내는 내공은 물론 대중영화와 예술영화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시각 덕분이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며 죽어가는 노인도 살리면서,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비로소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는 진실을 깨닫게 되는 일종의 성장영화인 셈이다. 시간의 블랙홀이란 무차원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선함을 행하는 길이라는 종교적 가르침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시시프스처럼 죽지도 못한 채 바위를 굴려야 하는 형벌을 받는 인간의 무의미한 일상의 반복을 꼬집는 어쩔 수 없는 인간 의지의 표출로도 볼 수 있겠다. 세상 모든 일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오고, 어제와 오늘, 내일이 다르듯이 무의미란 있을 수 없는 행동의 원천이다.

마지막 장면 절망에 울부짖던 찰턴 헤스턴이 떠오르는 영화 **〈혹성탈출, 1968〉**이 생각난다. 1972년 지구를 떠난 우주선이 광속으로 여행 중 이름모를 행성에 불시착한 연도는 출발 시점으로부터 무려 2000년 이상이 지난 3978년이었다. 승선했던 3명의 우주인은 생존을 위해 사막지대를 건너 평지에 다다르는데, 이곳에서 마치 짐승처럼 말도 하지 못하는 인간들과 조우하게 된다. 의아할 틈도 없이 그들은 말하는 지능적인 유인원들에게 사냥당하게 된다. 생체실험의 도구로 쓰이게 된 주인공은 우호적인 유인원 몇과 말 못 하는 여성 인간 노바와 함께 탈출하여 인간 문명의 흔적이 있던 곳으로 도망치게 된다. 함께 탈출했던,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유인원 원로를 뒤로한 채 해변을 따라 말을 타고 가던 주인공은 모래사장에 묻혀 있던 자유의 여신상과 마천루를 보고는 망연자실한다. 그들이 도착했던 행성은 실제로 그들의 미래였던 것이라는 너무나 충격적인 결말이다. 인간들은 서로 싸우다 자멸한 채 유인원들이 지배하는 또 다른 세상이 도래했던 것이다. 이 정도면 얼마나 덧없을지 상상이 가는가? 어찌 보면 인생이란 미시적으로 하루하루 일상을 살지만 거시적으로는 후세에 공간과 식량을 남기기 위해 스스로 소멸되어가는, 2000년 후의 쓰러진 자유의 여신상과 같은 시간의 흐름과 같은 것이리라.

'인생은 아름답다(La vita é bella)'는 말은 공산주의자인 방황하는 유대인 트로츠키의 유언장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레닌과 충돌했으나 스탈린처럼 그의 추종자로 행세하며 정권을 잡지도 못했고, 체 게바라처럼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떠나지도 못한 어정쩡했던, 자신의 앞가림도 하지 못한 그의 행적이 얼마나 고달팠으면 암살을 목전에 둔 마당에 인생은 아름답다고 했을까. 영화 개봉 당시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던 영화가 있었다. 뻔한 줄거리에 식상한 주인공, 거기다 뮤지컬 형식이라니. 결혼하고 남편과 애들 뒤치다꺼리에 골병이 든 아내가 있다. 무뚝뚝한 남편과 이를 빼다 박은 아들, 정말 말 안 듣는 딸. 그래도 자신보다는 가족이 우선이었던 삶이었고 누구 하나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저 묵묵히 아내이자 엄마의 자리를 지켰던 그녀였다. 어느 날 의사로부터 폐암 말기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잘해봐야 2개월 남았다는 사형선고였다. 아내의 폐암 선고를 전해 들은 남편의 첫 마디는 "두 달 뒤면 아들 수능시험인데."였고 아내의 얼굴을 보니 괜히 화가 나고 소리를 지르지만, 일상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다. 서러워진 아내는 소리친다. "왜 안 물어봐? 괜찮냐고.. 아프지 않냐고.. 다른 방법은 진짜 없는 거냐고.. 왜 안 물어봐?" **〈인생은 아름다워, 2022〉**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아내와 남편이 준비하는 총천연색의 복고식 이별의 여정이 그려져 있다.

죽기 전 하고 싶은 일을 써 내려가다가 문득 고등학생 때 첫사랑 오빠가 생각이 났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남편에게 '박정우'가 어디 사는지 찾아내라고 떼를 쓰고는 그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떠한다. 그런데 그들의 여행지는 그 둘의 추억이 담긴 인생의 여정지이기도 하다. 딸을 낳았던 곳, 아버지 산소가 있는 곳, 신혼여행을 갔던 곳을 지나 길 위에서 부부는 오랜 시간 방치하여 먼지가 쌓였던 추억을 새록새록 꺼내본다. 첫사랑 정우의 집에서 깨닫게 된, 남편이 자신의 실질적인 첫사랑이라는 사실에 어이없어 하지만, 둘은 깨닫게 된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잊고 있었지만 그들은 한때 열렬히 사랑했던 한 남자와 한 여자였다는 사실을. 이윽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마지막 잔치를 준비한다. 눈물이 아닌 웃음으로 가득 찬 뜨거운 파티는 '뜨거운 안녕'이 흘러나오며 대미를 맞는다.

한순간 죽음을 맞게 되는 사람의 인생이 과연 아름다울 수만 있을까? 억울할 것이고 회한에 찰 것이며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을 것이다. 앞뒤 맥락이 없다면, 인생을 어느 한 시점에 재단하여 볼 때 분명 긍정적이지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첫 번째 입맞춤을 할 때의 두근거림, 첫 월급날의 뿌듯함, 아이가 태어날 때의 벅참, 비로소 가지게 된 내 집을 마주하면서 느끼는 감흥. 그 외에 가족을 지키려 열심히 살아온 지난날들, 온전한 나를 완성해 나가는 사회적 과정 등을 생각해 보노라면 주마등처럼 펼쳐지는 한 웅큼의 기억들은 그래도 인생은 살만했다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미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글. **송승환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월트 디즈니



월트 디즈니와

폐암 Lung cancer

전 세계에 디즈니와 관련된 추억이 없는 어린이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월트 디즈니. 그는 〈정글북〉을 제작하던 당시 폐암이 발생했고, 폐 절단 수술을 받았지만, 1966년 결국 말기 진단을 받고 6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디즈니는 소문난 담배 애호가였기에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은 흡연일 것으로 보인다. 그를 죽음으로 이끈 폐암에 대해 알아본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발생률 1위 암은 폐암이고,
기대수명인 약 83.5세까지 생존하였을 때 폐암에 걸릴 확률은 36.9%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 환자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국가암등록통계는 매년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암 등록 현황을 조사하여 통계를 발표한다. 2022년에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암 환자 중 폐암 환자는 11.7%로 갑상선암(11.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 5년 생존율은 36.8%로 췌장암(15.2%), 담낭 및 기타 담도암(29.0%)에 이어 3번째를 기록하였다. 즉, 많이 생기면서 생존율은 낮은 암이다. 폐암은 조기에 발견하여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면 약 75% 이상의 높은 완치율을 보이지만, 대부분 초기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과 진단이 어려운 질병이다. 흔히 사람들이 폐암이 생기면 동반된다고 생각하는 기침, 객혈,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아 치료가 어려울뿐더러 치료를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

최근에는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이 많고 흉부 CT 검사가 보편적으로 시행되면서 폐에 결절이나 암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건강검진을 통해 흉부 CT에서 유리를 갈아 놓은 듯 뿌옇게 보이는 폐의 음영(간유리음영)이 발견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실제로 건강검진 CT에서 우연히 발견되어 외래로 내원하는 경우도 상당수이다. 국내의 한 연구에서는 간유리음영이 관찰된 환자를 수술한 결과 많은 수에서 폐암의 전단계에 해당하거나 초기 폐암으로 밝혀지는 등 폐암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사람의 폐는 우측에 3엽(우상엽, 우중엽, 우하엽), 좌측에 2엽(좌상엽, 좌하엽)으로 나누어져 있다. 기본적으로 폐암의 수술적 치료는 암이 발생한 폐엽을 절제하는 폐엽절제술이다. 하지만, 앞서 기술한 대로 최근 초기 폐암 등 조기 진단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일본에서 대규모 연구를 통해 크기가 작은 간유리음영 등에 대해서는 폐엽절제술보다 작은 범위의 수술로도 치료 효과가 낮지 않음을 발표하여, 현재는 경우에 따라 구획절제술 등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은 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폐암의 수술적 치료는 현재 대부분의 경우에서 흉강경이라는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을 시행하므로 통증이나 흉터도 적고 회복도 빨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일부의 경우에는 수술실에서 수술 중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의료진과 상의하여 신속하게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발생률 1위 암은 폐암이고, 기대수명인 약 83.5세까지 생존하였을 때 폐암에 걸릴 확률은 36.9%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 환자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흔히 고령의 환자와 보호자들은 나이 등을 이유로 전신마취나 수술, 이후의 합병증 등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폐 기능을 비롯하여 원래의 건강 상태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나이 자체가 수술적 치료에 있어 걸림돌이 되지는 않으므로 의료진과 상의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술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술적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정설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면역치료 등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어 수술 후 치료의 성적도 좋아지면서 폐암의 5년 생존율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폐암을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상의하는 것이 폐암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글. 전혜정 사진. 안용길

사랑 넘치는 일상으로의 초대

한양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엄정민 교수님께 보내는 편지

간절히 임신을 원했지만, 매우 큰 자궁근종으로 인해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는 지애진 님. 그녀는 엄정민 교수를 만나 그토록 원하던 아기 천사를 품에 안았다. 교수님께 은혜를 입었다며 늘 감사한 마음이라는 지애진 님과 환자분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밝은 웃음을 보면, 이러한 엄마의 보살핌을 받는 아기는 반드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엄정민 교수의 이야기.



'엄마'가 되는 기쁨을 선물해주신 엄정민 교수님께



교수님 덕분에 채은이를 만나 '엄마'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난임이 걱정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두 달 만에 마리아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산전 검사를 통해 자궁근종을 발견했고, 근종 제거 수술을 권하시더라고요.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 결과를 듣고 나서 산부인과 진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눈물만 나고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지요. '이왕 해야 하는 거 빨리 수술하자'라고 생각하고 마리아병원에서 추천해 주신 한양대학교병원을 찾았습니다. 사실, 저는 남자 선생님보다 여자 선생님을 선호하는 편인데 엄정민 교수님을 만나 고민 없이 바로 진료를 결심했습니다. 무엇보다 자궁근종에 대한 치료가 우선인지라 곧바로 초음파 촬영을 하고 보니 자궁근종이 뱃속에 8cm 크기로 자궁 중앙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근종이 임신을 방해하는 요인이라 임신이 힘들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 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임신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기에 무조건 교수님 말씀대로 따르기로 마음먹었죠. 엄정민 교수님의 완벽한 수술과 마음 써주신 덕분에 자궁근종은 완전히 제거되었고, 예쁜 공주님 채은이도 만날 수 있었답니다. 최근 진료를 통해 둘째를 갖는 것도 아주 좋은 상태라는 아주 기쁜 소식도 전해주셨어요.(웃음) '임신이 안 되면 어떡하지?'하는 걱정과 고민이 많았는데 교수님 덕분에 새 생명을 낳게 되어서 매 순간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만으로도 바쁘실 텐데 병원을 찾는 여성들의 마음은 물론 보호자까지 세심하게 챙기시는 엄정민 교수님! 교수님과 인연은 정말 저에게 행운이고 큰 복입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채은이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여자로서, 엄마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지금처럼 늘 다른 환자분들도 잘 돌봐주시리라 믿습니다.

지애진 드림

언제나 아이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실 지애진 님께



축복받은 아이, 채은이와 늘 행복하세요~

지애진 님은 한양대학교병원의 오랜 협력병원인 마리아병원에서 임신 시도를 하던 중 아주 큰 자궁근종이 발견돼 근종 수술을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근종은 자궁 앞쪽에 위치한 데다 8cm에 달하는 매우 큰 근종이었고, 임신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크기와 위치였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자궁근종은 자궁 근육세포가 자라서 형성된 양성 종양으로, 70~80% 정도의 성인 여성의 자궁에서 발견될 만큼 매우 흔한 종양입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비정상 자궁출혈, 생리 과다, 생리통, 하복부 통증, 압박감, 빈뇨 등의 증상을 유발하거나, 커지는 속도가 매우 빠른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지애진 님은 향후 임신과 출산 계획이 있었기에 자궁손상 최소화, 추후 임신 시를 고려해 봉합에 있어서도 세심하게 수술하였습니다. 수술 이후 3차례의 자궁 상태 확인 후, 임신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 두 달 만에 마리아병원으로 회송을 드렸고요. 그리고 1년 후 지애진 님께서 갑자기 외래를 방문하셔서 임신 18주라는 매우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수술 집도의로서 매우 보람을 느끼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근종절제술 이후 출산은 안전하게 제왕절개술이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애진 님께서 저에게 수술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셨을 때 한 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지애진 님은 힘든 임신 기간 중에도 항상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밝은 기운이 저에게도 전달되었답니다. 특히, 출산 시에 힘든 제왕절개술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지 않은 모습으로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환자분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밝은 웃음을 보면, 이러한 엄마의 보살핌을 받는 아기는 반드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엄정민 드림

언론 속 한양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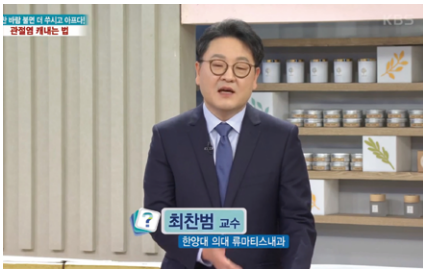
TV와 신문에 등장한 한양人을 소개합니다.
2023년 10월 ~ 11월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장성호 교수
엉덩이 근육 건강



SBS 모닝와이드 김지홍 교수
안구건조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최찬범 교수
류마티스관절염



MBN 명사수 김이석 교수
골다공증





연합뉴스 김상헌 교수
코로나로 위험 증가한 천식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희진 교수
혈전과 혈액순환 장애



KBS 아침마당 심재항 교수
만성통증



MBC 오은영리포트 노성원 교수
알콜중독

한양대학교병원

배재만 산부인과 교수 KBS [건강365]/ 10월 1일/ 자궁경부암 **김지홍 안과 교수** SBS [모닝와이드]/ 10월 11일/ 안구건조 **하태경 외과 교수** KBS[건강365]/ 10월 12일/ 탈장 **김완기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KBS [건강365]/ 10월 17일/ 대동맥판막협착증 **김이석 정형외과 교수** MBN [명사수]/ 10월 18일/ 뼈가 뚫리면 명도 뚫린다! 新 국민병, 골다공증 **이항락 소화기내과 교수** KBS [건강365]/ 10월 19일/ 위암 **김상헌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연합뉴스/ 10월 22일/ 한양대병원, '코로나19에 따른 신규 천식 위험 2배' 규명/ 연합뉴스, MBC/ 10월 23일/ 코로나19, 천식 발병 높인다/ KBS [건강365]/ 11월 9일/ 천식 **김희진 신경과 교수**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월 30일/ 쌀쌀해지면 혈관이 막힌다, 혈전과 혈액순환 장애/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월 20일/ 치매 **김영서 신경과 교수** KBS [건강365]/ 11월 17일/ 뇌경색 **노성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MBC [오은영리포트]/ 11월 17일/ "오은영, 정곡 찌르는 해석 감탄…'알콜지옥' 촬영하며 힐링" **장효준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KBS [건강365]/ 11월 21일/ 폐암 **성원재 신경과 교수** KBS [건강365]/ 11월 30일/ 루게릭병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장성호 재활의학과 교수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월 4일/ 혈당 · 치매 · 통증까지 잡는 생명의 축, 엉덩이를 살려라/ 10월 5일/ 지금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내 몸 건강 상태/ 11월 15일/ 건강 수명 좌우하는 근육 양보다 질을 높여라 **이준호 외과 교수** KBS [건강365]/ 11월 1일/ 치핵 **심재항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월 2일/ 일상을 괴롭히는 만성통증 **권혁성 신경과 교수** KBS [건강365]/ 11월 5일/ 알츠하이머병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최찬범 류마티스내과 교수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월 17일/ 찬바람 불면 더 쑤시고 아프다, 류마티스관절염

2023년 10월 17일(화)


한국일보

아이의 아랫배가 볼록하고 고통스러워한다면… '서혜부 탈장' 의심을

2023년 10월 21일(토)


東亞日報

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최중섭 한양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등산 건강법

841일 만에 100대 명산 완등 "이젠 남 부럽지 않은 건강인"

NEWS

News Paper

2023년 10월 31일(화)


국민일보

터지면 최대 50% 사망… '경고성 두통' 지속

2023년 11월 14일(화)


… 땐 40%가 즉시 사망하는 '대동맥 박리'일 수도"

한양대학교병원

이강녕 소화기내과 교수 머니투데이/ 10월 1일/ 향은, 맛은?…'영화 광해'처럼 어의가 임금의 대변을 먹은 이유 **안성준 안과 교수** 한국일보/ 10월 2일/ 실명 유발 1, 2위 황반변성 · 당뇨망막병증 최근 10년 새 2배 증가 **박훈기 가정의학과 교수** 머니투데이/ 10월 4일/ "연휴때 너무 먹었나" 배가 더부룩…'이 증상'까지 보인다면/ 이데일리/ 10월 24일/ 청소년 4명 중 1명 '스마트폰 중독'/ 머니투데이/ 10월 25일/ "폰 볼 때 건드리지 마"…스마트폰 중독률, 여학생이 더 높았다 **오재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머니투데이/ 10월 5일/ 가을만 되면 '훌쩍' 알레르기로 고생한다면…이 시간엔 환기 피하세요 **엄정민 산부인과 교수** 머니투데이/ 10월 10일/ 엽산은 임신 후 섭취? 실수로 먹은 감기약은 태아에 치명적? 임신 Q&A **박세운 감염내과 교수** 서울신문/ 10월 11일/ 초가을인데 한겨울 수준 '독감'… 감기로 앓봤다간 독하게 당해요/ 서울신문/ 11월 28일/ 무증상 독감도 옮겨요… 예방접종은 기본, 휴식 · 가습 충분히 **태경 이비인후과 교수** 서울경제/ 10월 16일/ 대구 의약계 연구 '빛났다' **손준혁 외과 교수** 한국일보/ 10월 17일/ 아랫배 볼록한 우리 아기…혹시 '서혜부 탈장' 때문? **최성훈 정형외과 교수** 서울신문/ 10월 17일/ 25~42세 70%가 '거북목'… 허리 · 목 꼿꼿이 세워야 '목 미인' **전형준 신경외과 교수** 서울신문/ 10월 17일/ 25~42세 70%가 '거북목'… 허리 · 목 꼿꼿이 세워야 '목 미인'/ 서울신문/ 10월 26일/ '에취' 하다가 '악'… 공포의 허리 디스크, 75%는 자연 치유됩니다 **최중섭 산부인과 교수** 동아일보/ 10월 21일/ 841일 만에 100대 명산 완등 "이젠 남 부럽지 않은 건강인" **김희진 신경과 교수** 중앙일보/ 10월 22일/ 툭하면 '앞으로 꽈당' 이 병이었네…잘 넘어지는 건 '뇌의 경고'/ 서울신문/ 11월 15일/ 잃어버린 기억… 남이 먼저 알면 치매, 내가 먼저 알면 건망증 **김상헌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머니투데이, 한국일보, 세계일보/ 10월 23일/ 코로나19, 천식 발병 높인다 코로나19, 천식 발병 높인다 **김진수 응급의학과 교수** 머니투데이/ 10월 23일/ "너무 가려워" 벅벅… '빈대' 물린 곳에 물파스, 효과 있을까? **노성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스포츠월드/ 10월 29일/ 국내 20대 마약 중독 증가..재발해도 포기말고 치료, 일상은 바쁘게/ 서울신문/ 11월 8일/ 쓸쓸한 가을에 한 잔 꺾는다?… 2030 여성 음주 의존증 주의보/ 스포츠월드/ 11월 9일/ 오은영 박사와 '알코올 문제' 다룬다/ 머니투데이/ 11월 15일/ "빈대 물린 줄" 갑자기 가려워서 '벅벅'…이 질환 때문이었다/ MBC/ 11월 17일/ "오은영, 정곡 찌르는 해석 감탄…'알콜 지옥' 촬영하며 힐링/ 서울신문/ 11월 22일/ 무호흡증 부르는 코골이… 질 낮은 수면, 아이들 성적까지 떨어져요 **최규선 신경외과 교수** 국민일보/ 10월 30일/ 터지면 최대 50% 사망… '경고성 두통' 지속 땐 위험 신호 **최동호 외과 교수** 전자신문/ 11월 10일/ "소프트 임플란트…'면역거부반응' 벽 넘어 '인류의 삶' 이끄는 인공장기" **김인아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한겨레/ 11월 12일/ 절망이라는 이름의 질병 **김완기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한국일보/ 11월 12일/ '가슴이 쪼개지는 듯한' 흉통 생기면 심근경색?… 40%가 즉시 사망하는 '대동맥 박리' 때문일 수도 **나재윤 소아청소년과 교수** 국민일보/ 11월 20일/ 갑자기 픽… "자꾸 기절하는 아이, 원인 질환 찾는 게 중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재현 재활의학과 교수 머니투데이/ 10월 3일/ 지옥 같은 천국의 계단…이렇게 타면 '한 달 10kg' 쭉쭉 빠진다 **최준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세계일보/ 10월 4일/ 입시 · 취업 무한경쟁… 코로나 후유증… 청춘은 아프다/ 우울증약 중독 된다? 정신질환 치료 잘못된 속설은/ 11월 12일/ 당신도 우울하십니까?

HANYANG NEWS

2023년 11월 ~ 12월

한양대학교의료원

비뇨의학과교실, SUDAN 세미나



한양대학교의료원 비뇨의학교실은 지난 10월 30일 본관 3층 강당에서 비뇨기계질환을 주제로 SUDAN(Seminar of Urology Doctors And Nurses) 세미나를 개최했다.

Hihy 건강저장소,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SNS 부문 우수상



한양대학교의료원에서 운영하는 SNS 채널 『Hihy 건강저장소』가 지난 11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SNS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양대학교병원

첨단 방사선치료기 트루빔 본격 가동 및 개소식



한양대학교병원은 꿈의 암 치료기라 불리는 '트루빔(TrueBeam STx)'을 도입해 시험가동을 마치고 11월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했으며, 지난 11월 12일 신관2층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트루빔은 일반적인 방사선치료(3D-CRT)뿐만 아니라 세기조절방사선치료(IMRT), 영상유도방사선치료(IGRT), 호흡연동방사선 치료(RGRT), 체부정위방사선치료(SBRT) 등 모든 치료기술을 다 갖추고 있다.

오산한국병원과 모자병원 협약식



한양대학교병원은 지난 11월 17일 오산한국병원과 전공의 파견 수련 및 지역사회 의학발전을 위해 모자병원 협약식을 체결했다.

병원학교 누리봄교실 개교 18주년 기념식



한양대학교병원 병원학교 '누리봄교실'은 지난 11월 23일 본관 3층 강당에서 '개교 1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제12회 감염관리 주간행사



한양대학교병원은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한 병원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난 11월 24일 병원 본관 1층 로비와 3층 강당에서 '제12회 감염관리 주간행사'를 개최했다.

위식도역류질환·소화불량증 공개강좌

한양대학교병원은 지난 12월 1일 본관 3층 강당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위식도역류질환·소화불량증 공개강좌'를 개최했다.

임상시험센터, 에디이엠코리아와 업무협약 외

한양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가 지난 12월 14일 에이디엠코리아(주)와 임상시험 진행 활성화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또, 지난 11월 22일에는 (주)디티앤사노멕딕스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필요한 정보교류와 기술 교환에 적극 협력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암센터 2023 간 건강 심포지엄

한양대학교병원 암센터는 지난 12월 22일 본관 3층 강당에서 '장수 간 건강: 도전과 발전'을 주제로 '2023 간 건강 심포지엄'를 개최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치과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우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2021년(2차) 치과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치과 근관치료 잘하는 병원임을 입증했다.

창작공모전 시상식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개원기념일을 기념하여 환자안전/직원만족/고객만족을 주제로 창작 공모전을 진행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10월 31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5회 외상외과 심포지엄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지난 11월 22일 본관 12층 사랑의 실천홀에서 '제5회 외상외과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의료관련감염 강조주간 및 워크숍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지난 11월 16일 본관 12층 사랑의 실천홀에서 '제9회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강조주간 본 행사 및 '제6회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워크숍'을 개최했다.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공로상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지난 12월 1일 수술부위감염 감시 및 지원 협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국가임상시험재단과 업무협약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과 지난 12월 4일 신약개발 및 임상시험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에 난방비 후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지난 12월 4일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에 난방비 200만 원을 후원했다. 이번 난방비 후원금은 작은 보금자리조차 온기로 채우기 힘겨운 구리시 '에너지 빈곤세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제21회 QI 경진대회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지난 12월 8일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 내외부 고객 만족 및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제21회 QI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제12차 HUHRD 국제 심포지엄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은 지난 10월 19일 한양종합기술원 6층 회의실에서 '류마티스질환 치료의 진전'을 주제로 '제12차 HUHRD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강직척추염 주제로 건강강좌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은 지난 10월 21일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계단강의동 임우성 국제회의실에서 '강직척추염'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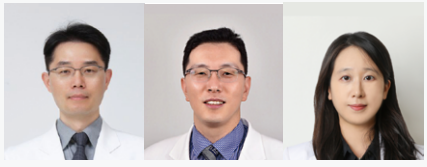
2023년 성과보고회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은 한 해 동안 이룩한 다양한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 지난 12월 15일 본원 1층 로비에서 '2023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인물동정

김상헌 교수팀, 국제학술지 『알레르기 및 임상면역학저널』 게재



한양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김상헌, 이현, 김보근 교수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알레르기 및 임상면역학저널』 9월 온라인판에 '코로나19 감염 후 새로 발병하는 천식의 위험 증가: 전국 인구 기반 코호트'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오재훈 교수, 대한응급의학회 소생의학 연구자상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오재훈 교수가 지난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대한응급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중증 응급환자 진료와 다양하고 선도적인 연구를 인정받아 '2023년 소생의학 연구자상'을 수상했다.



박세윤 교수, 대한감염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 우수연제상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감염내과 박세윤 교수가 지난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대한감염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요로감염 환자에서의 항생제 내성의 예측'이라는 논문으로 '우수연제상'을 수상했다.



김진남 교수, 대한에이즈학회 폴 얀센 학술상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김진남 교수가 지난 11월 17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진행성 다초점 백질뇌병증 환자의 장기 예후 및 전체 사망률'이라는 논문으로 '2023년 대한에이즈학회 학술대회'에서 '폴 얀센 학술상'을 수상했다.



권오균 국장, 동아병원경영대상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권오균 운영지원국장이 지난 12월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3차 병원 CEO포럼'에서 병원계와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행정부문 '동아병원경영대상'을 수상했다.



이현주 교수,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이현주 교수가 지난 12월 진료과 및 센터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치료시스템을 향상시키고, 의료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Hihy 건강저장소

한양대학교병원 건강전문채널
2023년 11월 ~ 12월



호정규 교수 고령임신은 고위험 임신?

정윤경 교수 담낭암

송승환 교수 폐암

김태환 교수 강직척추염

김완기 교수 대동맥박리



카카오톡 채널
'한양대학교병원'
http://pf.kakao.com/_WxgaR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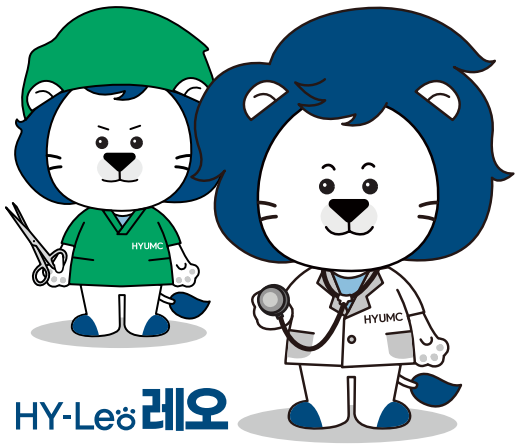
YouTube
'한양대학교병원(HYUMC)'
http://www.youtube.com/user/HYUnivMedical

네이버 포스트
'Hihy 건강저장소'
http://post.naver.com/hyumc-pr

카카오톡 채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http://pf.kakao.com/_xlxbMku

NAVER 포스트

Hihy 건강저장소 포스트



한양대학교병원 포스트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01 카더라통신 파헤치기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본 '카더라' 소문, 정말일까?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과 관련된 궁금증에 대해 한양대학교병원 전문의가 명쾌한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02 건강 크리에이터
평소의 생활을 통해 당신의 건강을 바꿔드립니다. 행동 패턴, 식습관 등 나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 전문의의 조언을 들어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03 카드로 보는 건강 Tip
짧고 임팩트 있게! 한번 보면 잊히지 않는 건강 정보를 직관적인 이미지와 함께 전달합니다.

04 바로 아는 건강정보
건강이 궁금하다면 드루와! 증상, 질병, 원인, 치료방법 등 보다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전문의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어떤 정보가 궁금하세요?



박세윤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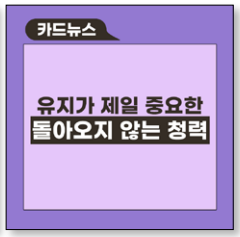
박성오 교수



호정규 교수



정윤경 교수



정재호 교수



이건석 교수



김완기 교수



최규선 교수



박성실 교수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발전기금은 의료원 발전의 디딤돌입니다.

발전기금은 의료원의 발전을 기원하는 기부자님의 뜻에 따라
인재양성, 연구개발, 학술지원, 환경개선 등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한양대학교병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미래를 함께하겠습니다!

미래의학을 선도할
최첨단 스마트병원 신축에
동행해주십시오.

발전기금은 한양대학교의료원을 아껴주시는 동문, 환자 및 보호자, 학생 및 학부모, 재단 가족 및 교직원,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홈페이지(fund.hyumc.com)로 바로 이동합니다.

기부 분야

인재양성기금
우수 인재 발굴 및 교육지원으로
글로벌 인재양성

학술지원기금
활발한 학술활동 지원으로
의학발전 선도

연구개발기금
연구역량 강화로 스마트한
메디컬 허브 구축

환경개선기금
진료환경 개선으로
환자중심병원 실현

※ 문의 :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 대외홍보팀
Tel. 02-2290-9535~6

기부 방법

방법 1 약정서 제출

▶ 발전기금 홈페이지(fund.hyumc.com) 접속 후 약정서 다운로드 및 출력
▶ 약정서 내용 작성
▶ 대외협력실 팩스(02-2296-3806) 또는 이메일(hmcfund@hyumc.com)

방법 2 온라인 약정

▶ 발전기금 홈페이지(fund.hyumc.com) 또는 QR코드 인식
▶ '온라인 기부' 클릭
▶ 약정 내용 작성 및 제출

※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31-815946(예금주: 한양대학교병원)
신한은행 100-031-811944(예금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TALK

발전기금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채널이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발전기금과 관련한 다양한 소식 전달 및
기부자님과의 1 :1 소통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가능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채널로
연결됩니다! (+채널추가)

기부자 명단

2023년 10월 ~ 11월

1억 원 이상~3억 원 미만	최종태 우림해운㈜				
1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차상석 ㈜한일사료				
1백만 원 이상~5백만 원 미만	김경래 교수	안유헌 교수	오영하 교수		
50만 원 이상~1백만 원 미만	국은영 직원	박한기(김옥임) 고객	세무사 이수진 사무소 고객		
1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	강창남 교수	강홍구 한양정형외과	고주연 교수	권오균 직원	김도윤 새움병원
	김명숙 직원	김명희 직원	김병제 김병제내과	김성재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김용호 김용호정신건강의학과
	김이석 교수	김자윤 해민정신건강의학과	김 진 직원	김진녀 직원	김태완 홍익안과
	김희수 수원제일정형외과	박미숙 직원	박정하 직원	박진식 MS재건병원	박희철 서울정형외과
	배근형 교수	서정심 고객	성명순 직원	손유경 직원	손희중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신태양 부평힘찬병원	심경아 직원	심지훈 양평병원	양 현 직원	염상철 동문
	이경석 교수	이경섭 이경섭정신건강의학과	이규용 교수	이두연 새움병원	이봉근 교수
	이성필 메디인병원	이승건 새움병원	이진규 교수	이창훈 교수	이희제 연세정형외과의원
	정규성 교수	정승원 상쾌한이비인후과	정우성 새움병원	정재홍 더정형외과	주일한 메디인병원
	최경진 최경진정형외과	최성훈 교수	최윤영 교수	최충혁 교수	최혁중 교수
	한주희 한주희정형외과	황규태 교수			
10만 원 미만	권난희 직원	권연희 직원	김나영 직원	김명환 직원	김문영 직원
	김소윤 직원	김애경 직원	김춘애 직원	김희나 직원	문병임 직원
	박경숙 직원	박미숙 직원	박미옥 직원	박상혁 직원	박선영 직원
	박유순 직원	박지경 직원	박진희 직원	서혜영 직원	손진석 직원
	신정미 직원	안미경 직원	양미영 직원	염주일 고객	오기향 직원
	오정님 직원	오홍석 건양대학교병원	유혜경 직원	육수영 직원	음희재 직원
	이경철 직원	이미경 직원	이의산 고객	이정희 직원	이현주 직원
	임연희 직원	임지영 직원	전순아 직원	진춘희 직원	한경수 고객
	한현수 직원	황미현 직원	황희복 직원	익명 고객	

한양대학교병원, 새해에는 어느 곳이 달라졌을까?





편히 앉아서 접수·수납! 본관 1·3층 원무 창구



장애인 편의 향상을 위한 새 단장! 본관1층 출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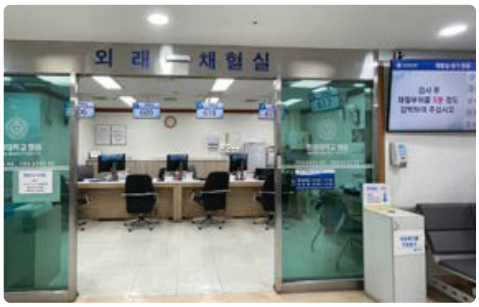
각 진료과의 명의를 한눈에! T관 명의 게시판



고객이 편안하게~ 동관 1층 신한프라자 휴식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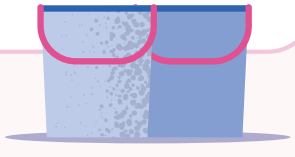
똑똑하게 변신! 채혈실 접수대기시스템





앞으로도 환자와 고객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한양대학교병원의 새로운 변화들을 기대해 주세요!

Coming soon~



한양대학교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 / 전화예약** : 02 - 2290 - 8114 ■ **진료의뢰 의사전용** : 02 - 2290 - 9717 http://seoul.hyumc.com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2290-8303 내시경▲	이오영	월, 화▲, 수, 금▲	화, 목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전대원	해외연수(2024.01.01~2024.12.31)		
	이항락	월▲, 수▲, 금, 토(4주)	월, 화, 수▲, 목▲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이강녕	월▲, 화, 목▲, 토(3주)	월▲, 화▲, 목, 금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윤재훈	월, 화, 목▲	월▲, 수▲, 목, 금▲	담낭염, 담낭담석, 담낭암, 담도염, 담도 및 간내담석, 담도암과 유두주위암, 급·만성 췌장염, 췌장암
	최성지	화▲, 수, 금	월▲, 화, 수▲, 금▲	담낭, 담도, 췌장
	윤아일린	화, 수, 토(2주)	수▲목금	간 질환, 간암, 급·만성 및 자가면역성 간염
	박진화	수▲, 목, 금▲, 토(1주)	월, 화▲, 수, 금▲	식도, 위, 장질환용종,조기암,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최한솔	금,토(1주)	월, 수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박성화	수, 토(2,3주)	화, 목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이승우	월, 화, 목, 토(4주)	금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심장내과 2290-8700	신진호	월, 수, 금	수	고혈압, 심부전, 심혈관중재술시술
	임영효	수, 금	월	관상동맥질환, 대동맥 및 말초동맥질환, 심혈관중재술, 성인선천성심질환
	박진규	월, 목(부정맥클리닉), 토(1주)	월(판독), 화	부정맥, 인공심장박동기
	허 란	화, 목(판독), 토(2주)	월, 목, 금	판막질환, 심부전, 심근병증, 폐고혈압, 심초음파
	김우현	목	화, 금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말초동맥질환(동맥정맥) 대동맥질환, 심혈관 및 말초혈관 중재술
	국형돈	화, 토(4주)	수, 목	심혈관질환, 대동맥판협착증, 말초혈관질환, 대동맥질환, 심혈중재시술, 경도관대동맥판막치환술
신장내과 2290-8300	김근호	월, 금, 토(4주)	화, 목	전해질장애, 고혈압, 신부전, 부종, 복막투석
	이창화	화, 수, 금, 토(2주)	월	사구체신염, 신장이식, 혈액투석, 복막투석
	박준성	월, 목, 토(3주)	화, 수	일반 신장질환, 사구체신염, 만성콩팥병, 고혈압, 부종
	이승헌			일반 신장내과질환
	전혜원			일반 신장내과질환
내분비대사내과 2290-8300	안유헌	월~목, 토(2주)	수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뇌하수체, 부신
	김동선	월, 수, 목, 토(1주)	월, 화	당뇨병, 뇌하수체, 갑상선
	박정환	화, 수, 금, 토(3주)	수, 목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뇌하수체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2290-8302 기관지내시경▲	윤호주	월, 수	목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면역성 폐질환, 기침, 알레르기, 폐암, 결핵
	손장원	목		호흡기중환자관리, 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 폐암
	김상헌	화, 금, 토(1주)	월, 화	기침, 천식, 알레르기, 약물 부작용, 면역치료
	박동원	월, 화▲, 수▲, 목, 금▲, 토(3주)	월▲, 화▲, 수, 목▲, 금▲	폐암, 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 중환자진료, 간질성폐질환
	이 현	월▲, 화▲, 수▲, 목▲, 금, 토(4주)	월, 화, 수▲, 목▲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기관지확장증, 폐암, 간질성폐질환, 결핵
	김보근	월▲, 화, 수, 목▲, 금▲, 토(1주)	월▲, 화▲, 수▲, 목▲, 금	일반 호흡기 질환, 간질성 폐질환, 폐결절, 폐암, 결핵/비결핵항산균폐질환, 기도질환(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기관지확장증)
	백선영		수, 목	호흡기 알레르기질환
혈액종양내과 2290-8300	박병배	화, 목	목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두경부종양, 뇌종양, 비뇨생식기계종양, 육종
	엄지은	금	월, 화, 수	급성백혈병, 골수이형성증, 재생불량성빈혈, 조혈모세포이식
	오석중	화, 수	목, 금	혈액질환
	박권오	월, 목	화	혈액질환비뇨,기계암(방광암, 전립선암, 신장암, 고환암), 육종, 신경내분비종양, 췌담도암(췌장암, 담도암), 부인과암, 위암, 대장암
감염내과	배현주	장 기 출 장		
	김봉영	해 외 연 수(2023.09.01~2024.08.31)		
	김진남	수, 목	월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클리닉
	박세윤	월	목, 금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클리닉
	윤초석	화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클리닉
소아청소년과 2290-8380	이영호	화(세포치료), 목	화	제대혈이식, 조혈모세포이식, 소아혈액암, 고형암
	오재원		월	소아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소아 호흡기질환
	김용주	화금(내시경), 토(4주)	월, 목	크론병, 궤양성대장염, 간-췌-담도질환, 식도-위-십이지장질환, 내시경치료
	양 승	목, 금	화, 목, 금	성장장애, 성조숙증, 갑상선질환, 당뇨, 비만, 희귀유전질환, 희귀대사질환
	박현경	화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육아지도실
	이현주	목, 금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육아지도실
	안지혜	수	월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육아지도실
	나재윤	월, 수, 목, 토(3주)	화, 수(심초음파)	소아심장 및 혈관질환, 부정맥, 성인선천성심장병, 가와사끼병, 소아 중환자
	최진주	화	수	
	이경미	월		
	김나영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육아지도실 2290-8871	박현경	월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신경과 2290-8367~8368 세포치료센터 &클리닉▲ 2290-9377 서관 7층	김승현	월(루게릭)▲, 목	월수(루게릭)▲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치매 및 루게릭병
	김희태	화, 수(이상운동장애 초진), 목▲	화, 목 (파킨슨)▲	이상운동질환(파킨슨), 손떨림, 뇌졸중
	김현영	수, 토(4주)	화,수,목	뇌졸중, 어지럼증, 경동맥협착, 안면마비
	김희진	화▲, 금, 토(3주)	화▲, 금	치매 및 인지기능장애, 뇌졸중, 뇌수막염, 안면신경마비, 어지럼증, 불면증
	김영서	월, 금, 토(1주)	월, 수	뇌졸중, 경동맥협착, 두통, 어지럼증, 불면증
	오기욱	수▲(루게릭), 토(2주)	월▲(루게릭), 수▲(루게릭초진)	말초신경계질환, 근육병질환, 두통
	박진석	월, 화, 목, 토(2주)	월	뇌전증, 실신, 수면장애,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두통, 치매, 하지불안증후군
	성원재	월금▲, 화, 토(1,3주)	월▲	일반 신경과질환
	정 수	목, 토(3주)	월,화,목	뇌졸중, 어지럼증, 경동맥협착, 안면마비
	김용성	수, 금▲, 토(4주)		일반 신경과질환
	김현기	수▲, 금, 토(3주)		일반 신경과 질환
정신건강의학과 2290-8419	김석현	월, 목, 토(2주)	화, 금	정신약물학,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노성원	화, 금, 토(1,3주)	월, 목	중독질환,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인지장애, 조현병
	김인향	월, 수, 토(4주)	수, 목, 금	소아정신의학,소아/성인 ADHD,발달지연
	이건석	화, 목, 금	화, 수	양극성 장애, 조현병, 불안장애, 우울증
피부과 2290-8434 레이저 클리닉▲	고주연	월(류마피부과), 화, 금▲(1,3주), 토(2주)	월, 금	여드름, 피부미용, 레이저,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결체조직질환, 피부암, 건선
	김정은	월, 수▲, 목, 토(4주)	화, 수	피부미용, 레이저, 색소질환, 건선, 백반증, 대상포진, 무좀 및 진균성질환, 피부암
	주민숙	수, 목, 금, 토(1,3주)	월, 목	일반 피부질환
외과 2290-8444	상부위장관 / 하태경	화	월(비만), 금	복강경/로봇위암수술, 고도비만대사수술, 복강경탈장수술
	상부위장관 / 이주희	월, 목	목	위암, 위장관질환, 탈장복강경, 로봇수술
	혈관 / 최지윤	화	수, 금	혈관외과, 신장이식, 지방종
	췌장, 간담도 / 이경근	목	화	간,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췌장, 간담도 / 최동호	수	월	간, 간이식,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췌장, 간담도 / 김경식	금	수	담낭, 간암, 복강경수술, 간이식
	췌장, 간담도 / 정윤경	월, 화	목	간, 담도, 췌장, 간이식, 복강경수술
	하부위장관 / 안병규	월, 수	수	대장(직장)암, 항문 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하부위장관 / 박성실	화	금	대장암, 항문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지방종, 복강경 탈장수술
	유방, 갑상선 / 정민성	목	월,목(맘모톰 시술)	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암, 갑상선질환, 로봇수술
	유방, 갑상선 / 차치환	수, 금	화	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암, 갑상선질환, 로봇수술
소아외과	손준혁	금	화	소아탈장, 소아복강경수술, 선천성소화기 기형, 항문직장기형(새항), 선천성 거대결장, 소아종양, 설소대, 소아변비, 단장증후군, 소장재활, 지방종
심장혈관흉부외과 2290-8461	김 혁	수	월, 수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대동맥수술, 선천성 심장질환
	장효준	월,수,토(2,4주)	목	폐암, 식도암, 기흉, 다한증, 흉강경수술, 하지정맥류
	김완기	화, 금		판막질환, 대동맥 및 말초혈관질환, 하지정맥류, 동정맥류 수술
	이연주		화, 금	관상동맥질환, 하지정맥류, 말초혈관질환, 동정맥류 수술
	송승환	화, 목	화	흉부종양(폐암, 식도암, 종격동종양, 흉벽종양), 흉벽기형(오목가슴, 새가슴), 기흉, 다한증, 흉부외상
정형외과 2290-8473	최충혁	월, 수	수	슬관절클리닉(관절경학,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성일훈	화, 목		족부클리닉, 당뇨발, 변형교정, 스포츠의학
	강창남	월, 수	월	척추클리닉, 골다공증
	이봉근	화, 목	화	견관절클리닉, 관절경, 외상학, 미세수술, 스포츠의학
	김이석	금	월, 금	고관절 클리닉, 외상학, 골다공증, 스포츠의학
	황규태	화	목	골절, 외상, 골반골절, 다발성 손상, 골다공증성 골절, 골수염, 불유합, 고관절 골절
	이진규	목	화, 목	슬관절 클리닉(관절경학,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이창훈	월, 금	수	수부외과 클리닉(미세수술), 주관절학
	최성훈	수	월, 수	척추 클리닉, 골다공증
	배근형	토	화, 금	소아정형외과

* 2024년 1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외과 2290-8491 ▲경추클리닉	백광흠	월, 수, 토(1주)		요통, 디스크(머리,허리), 척추관협착증, 척추골절, 척추기형, 척수종양
	이형중	목, 토(2주)	화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뇌동맥류, 수두증
	전형준	목, 토(3주)	월	척추질환, 척추외상, 척추종양, 두부외상
	최규선		월, 수	뇌혈관질환, 혈관내 수술, 모야모야병,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두부외상
	나민균	화, 금	화	뇌종양, 뇌하수체 종양, 두부외상, 수두증
	한명훈	금		뇌종양,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삼차신경 통 및 통증성질환, 방사선수술(노발리스 TX)
	고신웅		목, 금	응급실 통해 온 두부외상 환자 f/u 진료
성형외과 2290-8560	이영만	목	화	두경부 종양 및 연부조직조양, 욕창 및 만성 창상, 안면부 외상
	김연환	해 외 연 수		
	박성오	월, 수, 금, 토(3주)	월	안면외상(골절 및 신경재건), 수부외상, 선천기형, 미용성형, 미세재건, 두경부재건
	장란숙	목, 토(1주)	화, 목	소아성형, 안면외상, 화상, 미세성형, 골수염, 만성창상, 액취증, 지방흡입, 미용성형
	김효성	화, 토(2, 4주)	수, 금	미용성형, 양성종양, 만성창상, 욕창
산부인과 2290-8400	황정혜		월, 화, 목	폐경, 일반산부인과, 자궁경 및 복강경 수술
	최중섭	월, 수	수, 금	난소암, 자궁암, 일반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호정규	화, 목	화, 목	고위험임신, 조산, 일반산부인과,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배재만	목, 토(1, 3주)	월, 목	난소암, 자궁암, 일반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이원무	화, 금, 토(2,4주)	화	난소암, 자궁암, 일반 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엄정민	금, 토(2,4주)	월, 수	난소암, 자궁암, 일반 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금지현	월수,토(1주)	금	일반 산부인과질환
안과 2290-8570	임한웅	수, 금	월	성인사시, 마비사시, 소아안과, 약시, 신경안과, 성형안과, 백내장
	안성준	화, 금, 토(1주)	화	망막, 유리체, 백내장, 포도막, 미숙아망막증
	이원준	수, 토(2주)	월, 금	녹내장, 백내장, 사시경질환
	김유정	월, 토(3주)	수, 목	각막질환, 건성안, 류마티스안과질환, 쇼그렌증후군
	김지홍	월, 목, 토(4주)	목	망막, 유리체 , 포도막, 일반안과질환
	권현윤	토(5주)	금	망막, 유리체 , 포도막, 일반안과질환
이비인후과 2290-8580	김경래	목	월, 목	부비동염, 알레르기성비염, 부비동내시경
	태 경	월, 수	수	갑상선암, 두경부암, 후두암, 구강암, 로봇수술, 음성질환
	조석현	월, 화, 금(수면클리닉), 토(1주)	수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부비동내시경, 코골이, 코성형, 악안면외상, 수면 무호흡
	송창면	화, 목, 토(3주)	화, 목(음성클리닉)	후두음성질환, 성대질환, 편도질환, 구강질환, 갑상선암, 두경부암
	정재호	화, 목	화	어지럼증, 난청, 이명, 중이염, 안면신경질환
	최해원	토(4주)	월, 금	일반 이비인후과질환
	김희령	수, 금, 토(2, 5주)	목	일반 이비인후과질환
비뇨의학과 2290-8593	김용태	화, 목	화	배뇨장애질환, 여성비뇨기질환, 비뇨기암, 요로결석, 남성 성기능장애, 불임
	박성열	월, 목	월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로봇수술, 전립선질환, 소아 비뇨기과
	조정기	월, 금	월, 목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복강경 및 로봇수술, 요로결석, 전립선질환
	윤영은	화, 수	화, 수	결석, 로봇/복강경 수술, Endourology, 신장암, 방광암, 비뇨기 종양 항암치료, 신장이식, 전립선 비대증
	정규환	수, 금	수, 금	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결석, 혈뇨, 방광염, 전립선비대증, 로봇수술
재활의학과 2290-9350	김미정	월, 수, 금, 토(1주)	월, 수	소아재활, 근골격계재활, 노인재활, 뇌신경재활
	김준엽	월(루게릭), 화, 목, 토(1주)	목, 금	심폐재활, 뇌신경재활(이상운동), 암재활
방사선종양학과 2290-8614	전하정	월, 수	화, 수, 목	부인과종양, 유방암, 비뇨기종양
	박혜진	월, 화, 금	화	두경부암, 폐암, 소화기암, 림프종, 유방암, 방사선수술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핵의학과 2290-9260	최윤영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이수진	수		RI치료
치과 2290-8671	황경균	월, 화, 토(2주)	월, 화, 목	턱얼굴성형수술(기형),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침샘질환(타액선), 코골이장치
	박창주	화, 목, 금, 토(4주)	화, 수	턱얼굴 성형수술,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치과진정법
	한지영	월-수, 금, 토(2주)	월, 금	치주질환, 치주성형, 치주조직재생, 임플란트
	정혜전	월, 목, 금, 토(4주)	월, 목, 금	보존치료, 심미수복치료, 근관치료, 치아미백
	임승원	월, 수, 목, 토(4주)	월, 수, 목	심미교정, 수술교정, 투명교정, 성장기교정, 성인교정
	인희진	월-목, 토(2주)	월, 화	임플란트, 완전/부분틀니, 심미보철, 일반보철
가정의학과 2290-8738	박훈기	수, 금, 토(2주)	월, 목	가정의학, 스포츠의학
	황환식	월, 화, 목, 토(4주)	금	만성피로, 노인의학, 건강증진의학
맞춤형 비만치료센터 2290-9720	박훈기	월	목	맞춤형 비만관리 및 검진
	황환식	화	금	맞춤형 비만관리 및 검진
직업환경의학과 2290-9777	송재철		화, 수(1,3,5주)	산업재해, 업무상 질환, 직업 및 환경성 질환
	이수진	월	월, 수(2,4주)	산업재해, 업무상 질환, 직업 및 환경성 질환
	김인아		월	직업병 안심센터 치료
	민지희		수, 목	업무관련성평가, 업무 적합서평가, 직업병 안심센터 치료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동관 1층 : 02-2290-9216, 9217, 9226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류마티스내과 2290-9216	유대현	월, 화, 목, 토(2주)	화, 수	류마티스관절염, 성인형스틸병, 염증성근염, 골관절염
	배상철	월, 수, 목	월, 목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전재범	화, 수, 금	화(경피증클리닉), 목, 금	통풍,경피증(전신경화증),레이노현상,류마 티스관절염,재발성류마티즘
	김태환	화-목, 토(1,3주)	월, 화	강직척추염, 척추관절병증
	성윤경	월, 수, 금, 토(1주)	월, 수	류마티스관절염, 루푸스, 쇼그렌병, 골다공증, 골관절염, 강직척추염
	최찬범	화, 수, 목, 토(2주)	수, 목	류마티스관절염, 혈관염, 건선관절염, 강직척추염, 베체트병, 통풍,루프스,골관절염
	조수경	월, 수-금, 토(3주)	금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염증성근염, 통풍
	남보라	화, 금, 토(2주)	월, 화, 목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통풍, 강직척추염, 섬유근육통
	송여진	월, 수, 목, 토(1주)	수, 금	일반 류마티스질환
	김용범	토(4주)	월, 목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통풍, 강직척추염, 섬유근육통
	한정용	금, 토(3주)	수	
관절재활의학과 2290-9226	박시복	수, 금, 토(3주)	월, 수	족부재활, 류마티스재활, 근골격재활, 발크리닉
	이규훈	월, 화, 목, 토(2주)	화, 목	족부재활, 스포츠의학, 뇌졸중, 류마티스재활
통증의학과 2290-9216	김초롱	화, 금	화, 금	신경병증성통증, 척추통증, 급만성통증
골관절외과 2290-9216	최충혁		월	슬관절클리닉(관절경,인공슬관절전치환술), 류마티스 슬관절염, 골관절염, 인대손상, 관절 연골손상
	이봉근		목	회전근개 질환, 류마티스질환, 견주관절크리닉
	최성훈	월		경추크리닉(목디스크, 골절), 류마티스성 척추질환
류마티스 안과	김유정	목(1, 3, 5주)	월	쇼그렌 증후군, 강직척추염 관련 안질환, 류마티스관련 건성안, 공막염, 포도막염, 백내장, 각막질환, 콘택트렌즈
	안성준	목(2, 4주)		망막, 유리체, 황반변성, 백내장, 포도막, 미숙아망막증
류마티스피부과	고주연	월		류마티스 피부질환
류마티스 예방접종 클리닉	김봉영	해 외 연 수		
	김진남		화(2, 5주)	류마티스 예방 접종
	윤초석		화(4주)	류마티스 예방 접종
	박세윤		화(3주)	류마티스 예방 접종

한양대학교국제병원

서관 3층 : 02-2290-9550, 9551, 9552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종합검진센터 2290-9550	박훈기		화, 수	가정의학, 스포츠의학
	황환식		월, 목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박계영	월~금, 토(2주)	금	평생건강관리, 비만치료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전화예약 : 1644 - 9118 ■ 진료의뢰 의사전용 : 031-560-2082 http://guri.hyumc.com * 2024년 1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손주현	화	월, 목	각종 간질환(지방간, 알코올성간질환 바이러스간염, 간경변증(간경화증, 간암)
	한동수	월, 목	화	위장관 질환(염증성장질환, 대장암, 기능성위장관질환)
	전용철	월, 금	수	소화기, 위장관질환
	은창수	수, 금, 토(2,4주)	월	위질환, 대장질환, 식도질환, 소장질환, 위암, 대장암, 대장용종
	박찬혁	목	수, 금	위-식도역류질환, 위염 및 위궤양, 기능성 소화불량, 위암 식도암 치료내시경
	안지현	수, 목	화, 금	각종간질환, 바이러스 간염, 간경변증, 간암, 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
	주현돈	월	목	췌장 담도 질환, 담석증, 췌장암, 담도암, 췌장염
	오은혜	화	목, 금	위식도,대장질환, 대장용종, 위용종, 식도용종, 염증성 장질환, 위(대장)내시경, 지혈내시경
	정병욱	수, 금, 토(1주)	화	위대장질환, 위대장,소장내시경, 용종절제술, 위암대장암 내시경절제술, 염증성장질환
	김하일	월,화,금,토(3주)	수	각종 간질환, 바이러스 간염 간경병증, 간암, 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
심장내과	박환철	화, 목, 토(1주)	수	부정맥(상심실성 빈맥, 심방세동) 진단(전기생리학검사) 및 치료(고주파전기저극절제술 및 약물치료), 인공심박동기 및 체내삽입형 제세동기 삽입술, 급성심근경색증 치료(일차적 관통력 중재시술) 및 일반적인 허혈성 심질환(불안정형 혹은 안정형 협심증) 진단 및 치료(스텐트 삽입술)
	신정훈	월, 수	목	관상동맥질환,협심증,심근경색, 말초혈관질환 심혈관중재시술, 고혈압, 심부전
	김병식	월, 수, 토(2주)	화, 목	관상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심혈관 중재 시술, 고혈압, 심부전
	이용구	화, 토(3주)	수, 금	관상동맥 질환, 심혈관 중재술, 심부전 말초혈관 질환 및 중증 하지 허혈 질환
	김현진	목, 금	월, 화	심부전, 판막질환, 심근병증, 심막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성인선천성심질환, 심장초음파 및 혈관초음파
	김욱동	수	월, 금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심부전
신장내과	한상웅	월, 수, 목	화(클리닉)	만성콩팥병, 당뇨병, 콩팥병증, 고혈압, 사구체신염, 투석요법, 신장이식
	유미연	화, 수(클리닉), 토(2주)	월, 목	만성콩팥병, 당뇨병, 콩팥병증, 고혈압, 사구체신염, 투석요법, 신장이식
	이지원	목, 금, 토(4주)	화	만성콩팥병, 당뇨병, 콩팥병증, 고혈압, 사구체신염, 투석요법, 신장이식
	이선민	토(1주)	수, 금	만성콩팥병, 당뇨병, 콩팥병증, 고혈압, 사구체신염, 투석요법, 신장이식
내분비대사내과	이창범	화, 수, 목, 금	월, 목	비만 대사증후군, 당뇨병의 예방 및 치료, 갑상선, 골다공증
	유성훈	월, 목, 토(1주)	월, 화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일반내분비질환
	홍상모	화, 금, 토(1주)	화, 수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일반내분비질환, 비만
류마티스내과	이혜순	월, 수, 목	화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강직성척추염, 통풍, 루푸스, 경피증, 베체트병, 피부근염, 섬유근통
	방소영	화, 금, 토(2,4주)	월, 목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강직성척추염, 베체트병, 전신경화증(경피증), 섬유근통증후군, 레이노증후군
	주영빈	월,화,목,토(3주)	수, 금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루푸스, 경피증, 베체트병, 피부근염, 섬유근통
호흡기내과	김태형	월, 수, 목, 토(3주)	화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결핵, 폐암, 중환자치료
	문지용	화, 금	월, 목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만성기침, 폐렴, 결핵, 폐암
	박태선	토(4주)	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인공호흡기, 패혈증, ECMO, 중환자초음파, 경피적확장기관절개술), 호흡기질환(폐렴/폐결핵/폐색전증), 기침(호흡곤란/객혈, 기관지내시경
	여유미	수, 금, 토(2주)	화, 금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결핵
혈액종양내과	최정혜	화,목,금,토(2,4주)	월	유방암, 간암, 담도암, 췌장암, 소장암, 대장암, 직장암, 기타 전이암/재발암, 다발골수종, 악성림프종
	원영웅	월, 수, 금	화, 수	두경부암, 식도암, 폐암, 위암, 비뇨기암, 부인과암, 기타 전이암/재발암, 완화의료, 백혈병, 골수형성이상
	허준영	월, 화, 토(1, 3주)	목, 금	위암, 비뇨기암, 부인과암, 간암, 담도암, 췌장암, 소장암, 대장(직장)암, 기타 전이암/재발암, 완화의료, 다발골수종, 악성림프종, 기타 혈액질환
감염내과	김지은	수, 목, 토(2,4주)	월, 화	감염질환, 불명열, HIV 감염, 해외여행자
	김진영	화, 토(1,3주)	수, 목, 금	감염질환, 불명열, HIV 감염, 해외여행자
소아청소년과	김창렬	금	화	신생아/미숙아/영아(건강상담, 호흡기증상, 분만손상, 황달, 수유/영양장애, 발열, 설사, 발진, 성장발달), 예방접종 및 육아상담
	오재원	수, 금, 토(2주)	수	소아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소아호흡기 질환
	문진화	해외연수		소아신경질환, 소아뇌파, 경련, 열성경련, 뇌전증, 뇌염, 두통, 편두통, 어지러움, 발달검사, 발달지연
	이영호	월(매월1회)		소아혈액종양, 조혈모세포이식, 제대혈이식, 세포치료
	최영진	월,화,목,토(4주)	월, 목	소아알레르기질환, 소아호흡기질환, 천식, 알레르기성비염, 아토피피부염, 아나필락시스, 크룹, 모세기관지염, 폐렴
	최윤수	목, 토(1주)	월,수,목,금	소아내분비, 성장, 유전대사질환
	이경석	토(3주)	화, 금	소아응급 및 일반질환, 소아알레르기호흡기질환 (수,금요일 오후4시부터 10시까지 응급실 직접진료)
	냐재윤	금	금(심초음파)	소아청소년 심장 및 혈관질환, 가와사끼병, 부정맥, 실신, 성인 선천성 심장병, 소아청소년 고혈압, 소아응급질환, 소아중환자의학
	박민정	화	월, 목	소아알반질환, 소아신경질환
	황제균	월, 수		신생아, 미숙아, 영아, 예방접종 및 육아상담
신경과	이영주	화, 금	월, 목	뇌혈관질환, 파킨스병, 어지럼증
	이규용	월, 수, 금	화, 수	뇌졸중, 두통, 말초신경병증
	고성호	월, 화, 수, 목	수	뇌졸중, 신경퇴행성질환(치매, 파킨슨병)
	최호진	화, 목, 토(4주)	월, 목	치매, 두통, 어지럼증
	권혁성	수, 토(1,3주)	월, 수, 금	뇌졸중, 어지럼증, 두통, 수면장애, 뇌전증, 치매
	이용경	월, 토(2주)	금	일반 신경과 질환
정신건강의학과, 클리닉▲	김대호	화, 목	월, 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 불안장애, EMDR
	최준호	월, 수, 금	월▲, 수	조현병(정신분열증), 조울증, 우울증
	박선철	수, 목, 토(1~4주)	월, 목	우울증, 불안증, 노인정신의학
산부인과	류기영	월,화,목,토(1주)	화	초기진통 및 조산, 고위험임신, 초음파, 태아 이상의 진단 및 치료, 일반부인과(복강경수술)
	정언석	해외연수		부인암(자궁암 난소암, 난소암, 단일공법 복강경수술난소혹, 자궁근종), 갱년기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외과	정진환	월, 토(1주)	화, 목	뇌혈관질환, 뇌동맥류수술, 뇌혈관내수술(뇌혈관내수술인증의), 두부외상(외상외과 세부전문의)
	류제일	화, 수, 토(2주)	금	척추질환(최소침습수술, 척추내시경), 척수종양, 척추외상(외상외과 세부전문의)
	한명훈	월, 목, 토(4주)	수	뇌종양, 뇌정위기능, 노발리스방사선수술(뇌종양,뇌혈관기형), 두부외상
	원유덕	금, 토(3주)	월, 수	뇌동맥류, 모야모야병, 뇌혈관협착 뇌출혈 뇌졸중, 혈관기형 혈관내수술, 뇌외상
	하병진	목	월, 화	척추질환, 신경계 외상, 척추내시경
심장혈관흉부외과	노선균	화, 금	수, 금	심장질환(관상동맥,심장판막질환,심장종양), 대동맥 및 혈관질환(동정맥류,말초동맥질환,하지정맥류 등), 흉부외상, 기흉
	최수환	월, 수	월, 목	흉강경수술, 폐암, 식도암, 기흉, 다한증, 종격동질환, 흉부외상, 흉곽기형
정형외과	박예수	월, 수, 금		퇴행성 골다공증성 척추질환, 척추기형 및 강직성척추염, 척추손상, 경추질환 및 척추관협착
	박기철	수, 금, 토(1주)	월	외상클리닉(사지골절 골반골절, 사지변형교정술, 골다공증 골절 불유합 및 골수염
	정규성	화, 토(3주)	수, 목	무릎관절, 스포츠손상(인대 및 연골), 관절염 및 인공관절절
	조영훈	화, 목, 토(4주)	월	견주관절, 관절경, 스포츠손상, 오십견, 회전근개 질환, 수부외과클리닉(미세수술), 골절 및 외상
	이영석	월, 토(2주)	화, 금	수부미세수술, 류마티스 수부질환 손목 팔꿈치 관절경
성형외과	최승석	목	월	말초신경수술, 수부재건, 유방성형 당뇨발, 욕창
	이장현	화, 토(1,2,3,4주)	목	안검하수, 안면기형, 피부암, 침샘종양, 미용성형
	장정우	월, 금	수	미세수술, 당뇨족, 욕창, 안면외상, 미용성형
	정재아	수	화, 금	유방 재건 및 성형, 흉터 성형, 당뇨발, 미용 성형
외과, 유방클리닉▲	박훤겸	월, 목	화	간담췌외과(복강경수술, 줄기세포 치료 및 연구
	김한준	화, 금	목	간담췌외과, 복강경수술
	김민규	화, 수	월	복강경수술, 위암, 위궤양, 비만 및 대사질환, 소장, 탈장
	김형석	월, 목, 토(1,2,3,4주)	월▲, 화	유방갑상선외과(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질환, 갑상선암)
	이준호	수	월, 수	대장외과(대장, 소장질환)
	김현일		목	중환자실전담전문의, 복강경수술, 위장관, 소장, 탈장
	조유정	화, 금	수	소아외과, 소아복강경수술, 소아탈장, 소아외과질환, 성인탈장
	황성환		금	항문질환, 일반질환
안과, 클리닉▲	강민호	화, 목, 토(1주)	월	각막, 결막, 안구건조증, 합병백내장, 인공수정체, 탈구, 시각장애인스포츠
	신용운	월, 목, 토(2주)	월▲, 수, 목▲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포도막염
	홍은희	화, 토(3주)	수, 금	신경안과, 사시, 소아안과, 저시력, 신경망막염, 성형안과, 눈물길 클리닉
	황선진	수, 금, 토(4주)	화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포도막염
	김두루	수, 금	목	각막, 결막, 안구건조증, 합병백내장
피부과	김정수	월, 화, 목, 금	화	여드름, 주사, 소아피부질환, 피부종양 및 사마귀성 질환, 건선
	서현민	수, 토(1,2,3,4주)	월, 수, 목	아토피피부염, 두드러기, 접촉피부염, 백반증, 지기능부전질환, 피부외과, 피부감염
이비인후과	이승환	월	목	만성중이염, 난청, 이명, 어지럼증, 인공와우이식
	정진혁	화, 금	수	비대(코질환) : 부비동염 비중격 및 코막힘 수술, 알레르기비염 코골이, 코성형
	지용배	월, 목	화	두경부종양(구강, 인두, 후두, 침샘), 갑상선종양, 내시경갑상선 수술, 경부종양, 음성질환(목쉼, 성대결절), PITA 편도절제술(무통편도수술)
	정재호		수	어지럼증, 이명, 난청, 중이염, 소아이비인후과,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정선민	수	월, 금	알레르기비염,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 부비동염, 비중격 및 코막힘 수술, 소아이비인후과, 편도 절제술, 이비인후과 감염질환, 구강질환, 일반 이비인후과
	서희원	수, 금, 토(2주)	월, 금	일반 이비인후과 질환
	유병준	화, 목, 토(3주)		일반 이비인후과 질환
	이하나	토(1, 4주)	화, 목	일반 이비인후과 질환
비뇨의학과	문홍상	수, 목, 토(4주)	월, 목	전립선비대증, 배뇨장애 및 요실금, 과민성방광, 노인비뇨의학
	이승욱	월, 금, 토(1주)	화	전립선질환, 비뇨기종양, 복강경수술, 남성과학
	송병도	화, 토(2주)	수, 금	비뇨기계종양, 결석, 전립선질환
재활의학과	장성호	월, 금	월, 수	근골격계 재활, 보행분석, 족부질환
	한승훈	화, 수, 목	화, 목	근골격계 재활(오십견 등 어깨, 팔꿈치, 손, 허리, 목, 엉덩이, 무릎, 발 통증), 소아재활, 스포츠의학, 뇌신경재활, 삼킴장애
	박재현	월, 수	금	근골격계 질환(어깨통증, 무릎통증, 허리통증, 목통증)의 재활치료, 심장재활, 호흡재활, 일반재활의학과 질환, 운동치료
치과	박원희	월, 화, 수, 목, 토(2,4주)	수	심미보철, 일반보철, 임플란트, 치아미백, 턱관절 질환
	김윤영	화, 금, 토(1,3주)	월, 화, 목, 금	심미보철, 일반보철, 임플란트
핵의학과	김지영		화	종양핵의학
직업환경의학과	장태원		화	업무 관련성 평가, 업무 적합성 평가, 직업 및 환경성 질환
	김양우		목	업무 관련성 평가, 업무 적합성 평가
영상의학과	김응태	월~금	월~금	인터벤션 영상의학
진단검사의학과	박종은		목	유전성 여성암(난소암, 유방암) 유전상담
마취통증의학과	일반		월, 목	당일수술 마취전처치
통증클리닉	심재항	월, 수, 금	월, 금	급·만성 통증관리 및 치료
	박형준	화, 목, 토(1,3주)	화, 수, 목	요통, 관절통, 만성통증, 암성통증, 통증질환
관절류마티스클리닉	이혜순	금, 토(3주)	월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강직성척추염, 통풍, 루푸스, 경피증, 베체트병, 피부근염, 섬유근통
	방소영	월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루푸스, 통풍, 강직성척추염, 베체트병, 전신경화증(경피증), 섬유근통증후군, 레이노증후군
	주영빈	수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통풍, 베체트병, 루푸스, 만성통증
발걸음 클리닉	장성호	목, 토(4주)		어깨통증, 뇌졸중재활, 관절염, 장애판정
관절재활 클리닉	박재현	화, 토(2주)	목	근골격계 질환(어깨통증, 무릎통증, 허리통증, 목통증)의 재활치료, 심장재활, 호흡재활, 일반재활의학과 질환, 운동치료
척추신경외과 클리닉	류제일		화	척추질환 최소침습척추수술, 척수종양
통증심리 클리닉	김대호		수	통증 스트레스 상담



한양대학교병원 신경과에는 환자의 마음을 읽고, 치료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임상심리사가 있습니다.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 신경과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의 효과적인 방법을 파악하는 데
임상심리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의 도움으로 환자분들이 질병을 발견하고 치료하면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늘 감사한 마음이라는 김민경 임상심리사. 그녀가 있어 오늘도 한양대학교병원은 행복합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